

영국 방산시장 동향 보고서

2020. 2.

국방기술품질원

요 약

본 보고서는 영국 방위산업 시장에 관한 동향에 관하여 조사·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영국의 정치·경제 환경, 조달 정책 및 제도, 방위산업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국 방산수출에 관한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1장에서는 유럽연합 탈퇴로 급변하고 있는 영국의 정치·경제 환경에 대한 소개와, 직면하고 있는 안보 위협, 그리고 국방·안보 정책의 기반이 되는 전략적국방안보 검토서(Strategic Defence and Security Review, SDSR)의 핵심 내용을 수록하였다.

제2장에서는 영국 획득절차지침(Acquisition System Guidance, ASG)를 비롯한 조달 정책 및 방산장비지원청(Defence Equipment and Support, DE&S)등의 조달 기관 소개, 조달 절차 그리고 조달 전략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제3장에서는 영국 국방 예산의 단기 및 중·장기 변화 및 전망과 주요 획득 사업, 영국 방산 수출·입 시장의 역동성에 관한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영국의 방위산업 기반 및 경쟁 구도, 그리고 항공우주, 함정, 기동화력, C4ISR 등 분야별 업계 역량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제5장에서는 영국 방산 지출의 동향을 분석하여 유망분야를 선정하고, SWOT 분석을 통해 국내 주요 체계업체와 중소기업이 각각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원화 된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 보고서 조사·분석 보고서에 수록된 주요 내용 및 통계자료는 영국 국방부의 중소기업 실행 계획, 연간예산주기(Annual Budget Cycle, ABC) 지침, Janes Defense/IHS Markit사, SDI(Strategic Defense Intelligence)사의 영국 방산시장 분석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이 면은 공백임



제1장 방위산업 환경	1
제1절 안보 환경	3
1. 개요	3
2. 전략적 국방안보 검토서	5
3. 위협 요소	7
4. 국방 전략	9
제2절 정치·경제 환경	15
1. 정치 환경	15
2. 경제 환경	18
제2장 조달 정책 및 제도	21
제1절 조달 정책 및 전략	23
1. 조달 정책	23
2. 조달 전략	29
제2절 예산 편성 절차	32
1. 예산 절차	32
2. 국방부 연간예산주기	32
제3장 방위산업 시장	35
제1절 국방예산 현황	37
1. 예산 현황	37
2. 예산 지출 전망	43
제2절 주요 획득 사업	52
1. 육군	52
2. 해군	53

Contents

제2절 주요 획득 사업	52
1. 육군	52
2. 해군	53
3. 공군	55
제3절 수입 및 수출시장 역학	59
1. 수입시장 역학	59
1. 수출시장 역학	61
제4장 방위산업 역량	65
제1절 주요 방위사업체 역량	67
1. 방위산업 기반 및 경쟁구도	67
2. 방위산업 역량	68
제2절 주요 사업별 역량	71
1. 개요	71
2. 사업별 역량	71
제5장 시장진출 전략	77
제1절 방위산업 시장 분석	79
1. 시장 분석	79
2. 진출 유망 분야	81
제2절 진출전략	87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87
2. 해외직접투자(합작법인)를 통한 진출	89
3. 정부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활용	91
4. 브렉시트 후 영국내 글로벌 업체 GVC 편입 선점	95
5. 진입 장애요소	99



표목차

[표 1-1] 육군 전력	11
[표 1-2] 공군 전력	13
[표 1-3] 해군 전력	14
[표 1-4] 경제 현황	18
[표 2-1] 예산 절차	32
[표 3-1] 국방 예산	37
[표 3-2] 국방 예산(2018년 불변가격 기준)	41
[표 3-3] 국방 장비 계획	42
[표 3-4] 국방 지출, 2013년~2022년	43
[표 3-5] GDP 성장률 및 GDP 대비 국방 지출 비율	44
[표 3-6] 국방 예산 내역	45
[표 3-7] 영국 방위 능력 지출 내역	48
[표 3-8] 국방 예산 - 각 군별 내역	49
[표 3-9] 국토안보 지출	50
[표 5-1] 국방예산성장률, 2017년	79
[표 5-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87
[표 5-3] 영국 중소기업 기준	92
[표 5-4] 영국내 주요 글로벌 방산업체 요구 인증 현황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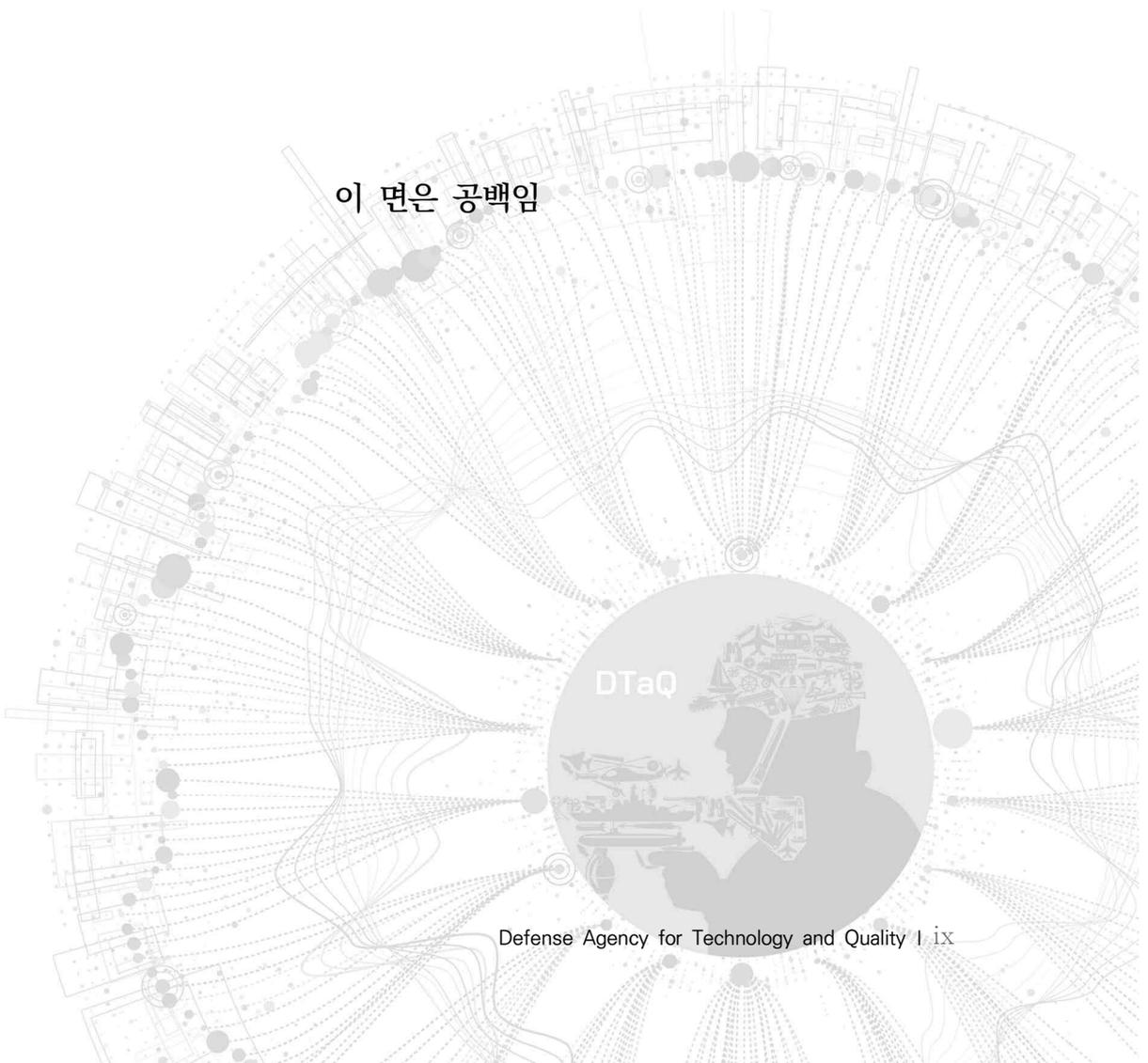


그림목차

[그림 1-1] EU내 방위 협력 기구	4
[그림 1-2]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6
[그림 1-3] 유럽연합 탈퇴 수정안	18
[그림 2-1] 영국 국방부 입찰정보 홈페이지	28
[그림 3-1] 퀴엘리자베스급 함모	39
[그림 3-2] 세계 주요 군비 지출국의 국방 지출	44
[그림 3-3] GDP 성장률 대 국방 지출 성장률	45
[그림 3-4] 국방 지출 배정 항목별 내역, 2013년~2022년	46
[그림 3-5] 평화유지 활동 예산, 2013년~2022년	47
[그림 3-6] 대외군사원조 예산, 2013년~2022년	47
[그림 3-7] 방위력 개선 지출 배정 내역, 2013년~2022년	48
[그림 3-8] 국방 예산 - 각 군별 내역, 2013년~2022년	49
[그림 3-9] 국토 안보 지출(파운드), 2013년~2022년	51
[그림 3-10] 국토 안보 지출(달러), 2013년~2022년	51
[그림 3-11] 다국적 장갑차량 복서	52
[그림 3-12] 방산 수입, 2012년~2016년	59
[그림 3-13] 국가별 방산 수입, 2012년~2016년	60
[그림 3-14] 범주별 방산 수입, 2012년~2016년	61
[그림 3-15] 방산 수출, 2012년~2016년	62
[그림 3-16] 국가별 방산 수출, 2012년~2016년	62
[그림 3-17] 범주별 방산 수출, 2012년~2016년	63
[그림 4-1] 영국내 주요 방산업체	68
[그림 5-1] 주요 시장과의 비교	80
[그림 5-2] 세계 주요 군비 지출국의 국방 지출	81
[그림 5-3] 탄도미사일 잠수함 시장 규모	82
[그림 5-4] 다목적 항공기 시장 규모	83
[그림 5-5] 네트워크 연결 시장 규모	84
[그림 5-6] 시설 관리 시장 규모	85
[그림 5-7] 다중이무 헬기 MRO 시중규모	86
[그림 5-8] 해외직접투자 절차	90
[그림 5-9] '브렉소더스' 현황	96
[그림 5-10] 유럽 방위산업내 한국 부품 수요	96



이 면은 공백임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제 1 장

방위산업 환경

1

제

장

방위산업 환경

제 1 절 안보 환경

제 2 절 정치 및 경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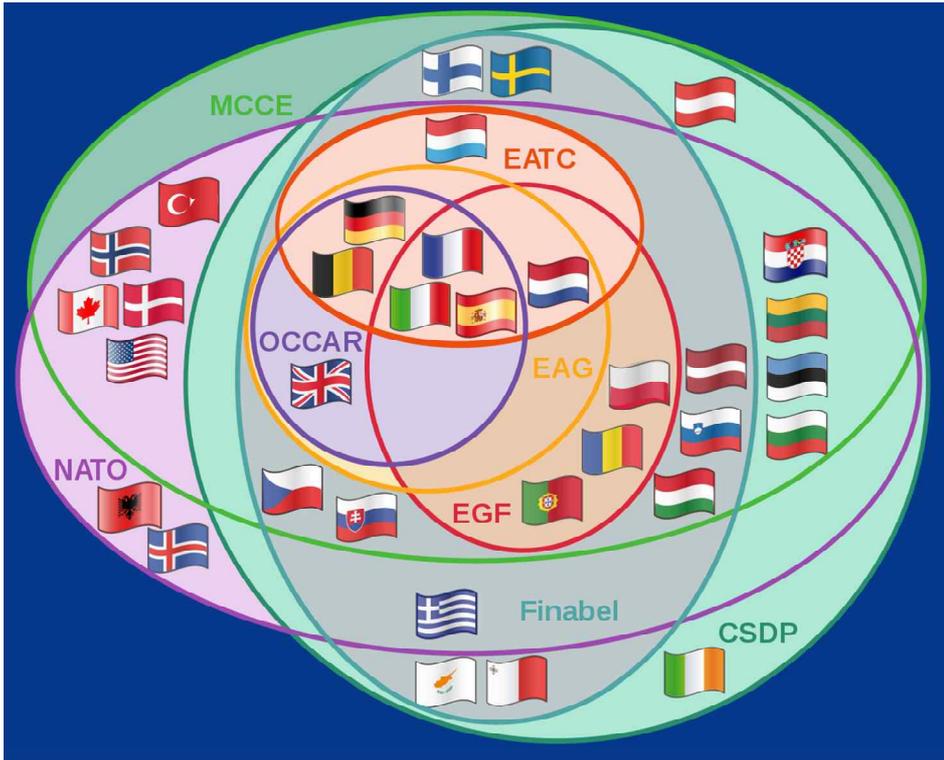
이 면은 공백임

제 1 절 안보 환경

1. 개요

- ❖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로 구성된 영국은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세계 인구와 영토의 1/4을 차지한 군사 강대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약간 쇠퇴하였으나 여전히 세계적으로 군사적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과학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강대국 중 하나이다.
- ❖ 영국은 UN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이자, G8과 NATO, EU의 회원국이며 1973년 유럽 경제 공동체 회원국이 되었다. 현재, 작지만 민첩하며 역사적 의무를 이행하는 조직으로 군을 재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군 및 군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 ❖ EU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시절부터 영국은 유럽과 우호적이지만 거리 있는 관계를 유지해왔다. 1973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이후 EU로 명칭을 바꿈)를 끝내 가입하긴 했지만, 2016년 탈퇴를 결심하여 2020년 1월31일부로 공식적으로 탈퇴한 상태이다. EU 탈퇴전 영국은 유럽 대륙 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EU 방위 정책 중앙화 및 강화에는 반대해왔다. EU 내에는 공동외교방위정책(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CSDP)를 중심으로 방산정책협력(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PESCO), 합동군비협력기구(Organisation for Joint Armament Cooperation, OCCAR)등 여러 안보협력 협정 및 기구들이 있다. (그림1-1 참조) EU 탈퇴 후에도 영국과 EU는 정치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EU내 외 영국의 영향력 감소는 불가피 해보이며, 영국은 영국연방 등 지역 외 동맹들과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 NATO는 영국 국방 안보 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NATO는 유럽 내 러시아 군사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된 군사 연합이며 영국은 최초 NATO 회원국 중 하나이다. 영국 정부는 NATO가 중앙 유럽 국가로 가입 대상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NATO 안보 동맹의 기반이 되는 NATO 헌장 제5조에 따르면 어느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NATO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며 이에 따라 영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의 지원이 의무화된다.
- ❖ 영국은 전통적으로 미국 및 다른 유럽 국가와 가까운 방위 유대 관계를 유지해 왔다. 영국은 특히 미국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2차대전 이후 줄곧 영국은 미국과 유럽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2011년 911테러 당시에도 영국은 NATO 국제안보지원군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ISAF)의 아프가니스탄 파견을 적극 주장하였다. 영국군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미국의 대IS작전에도 동참하였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친러시아 성향 및 이란과의 핵 합의를 탈퇴 등 영미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¹⁾



[그림 1-1] EU내 방위 협력 기구

* 출처 : Wikipedia.org

- 한국과는 1883년 처음으로 통상조약을 맺었으며 일본에 의하여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1949년 재수교하였다. 영국은 한국전쟁 참전 및 군사·경제지원, 유엔을 비롯한 기타 많은 국제 기구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최근 영국이 EU를 탈퇴를 함에 따라, 그간 한-EU간 협력의 기반이 되었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한-영 공동성명을 '19년 8월 채택하였다. 공동성명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무역 자유화 및 국제규범에 입각한 투자 증진, 지속가능 개발 등을 위한 양국의 협력의지등을 담고 있다.²⁾

1) Jane's Sentinel Security Assessment - Western Europe

2)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2. 전략적 국방안보 검토서

가. 영국의 국방 기획서

- ▣ 전략적 국방안보 검토서(Strategic Defence and Security Review, SDSR)는 국방·안보 정책 및 국방 예산을 기획 및 그 외 방위산업육성까지 아우르는 영국 국방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획서이다. SDSR은 2010년 보수-자유 민주 연합당이 총선에 승리하면서 기존 전략 국방검토서(Strategic Defence Review, SDR)를 대체하는 국방기획서로 발간되었다.
- ▣ 발간 목적은 기존 SDR에 안보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380억 파운드 이상 초과집행 되어왔던 국방부의 예산의 10~20% 삭감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실제 반영된 예산 삭감은 7.7%였다.

나. 2010년 전략국방안보검토서(SDSR) - 예산 삭감, 전략 방향의 재설정

- ▣ 영국 국방정책은 2010년도 전략국방안보검토서(SDSR)에 의해 크게 변화했다. 2010년도 SDSR은 2010년에서 2015년까지를 영국군의 전략 방향의 재설정 기간으로 보았으며 380억 파운드 이상 초과집행 되어왔던 국방부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전력 및 인원을 축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 육군 7,000명, 해군 5,000명, 공군 5,000명의 인원 감축과, 해리어(Harrier) 전투기와 HMS 아크 로얄(ArkRoyal) 항모의 즉각적인 퇴역, Nimrod MRA4 해상초계기(Maritime Patrol Aircraft, MPA) 사업 중단 등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해 일부 분석가들은 SDSR을 전략적 논리가 아닌 금전적 논리로만 작성하였으며 영국군의 전투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켰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 ▣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필립 해먼드는 10년 만에 국방부가 예산의 수지균형을 맞춰 2009년 영국 의회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이 2009년 지적했던 소위 380억 파운드 '블랙홀'을 제거했다고 2012년 5월 발표했다. 이는 한시적인 조치로 보였으나 2018년 의회감사원은 다시금 장비계획을 '충당할 수 없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며 당시 기준으로 '예산 부족분'이 50억에서 210억 파운드 사이라고 지적했다.

다. 2015년 전략국방안보검토서(SDSR) - 국방력 재양성

- ▣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은 국가 안보 과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재양성하는 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향후 10년간 국방 조달을 위해 120억 파운드(182억 달러)를 추가로 편성했다. 이렇게 편성된 재원은 보잉 P-8 포세이돈(Poseidon) 해상초계기 9기, 록히드마틴

사 F-35 JSF의 신속한 채택, 공군의 유로파이터(Eurofighter) 타이퐁(Typhoon)의 수명 연장과 성능개량에 지출할 예정이었다.



[그림 1-2]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 출처 : 2014 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

- 2015년도 SDSR에서 2015년-2025년 국방 조달 및 유지 비용으로 배정한 1,780억 파운드는 Y-1 연간 예산 주기에 예상했던 1,660억 파운드보다 높은 금액으로서 GDP의 2%를 국방에 투입하기 위해 증액된 것이며 이는 국방 예산이 향후 5년간 매년 실질적으로 증액한다는 의미이다.
- 또한 이 문건은 '합동군 2025'라 불리는 새로운 군조직 편성 계획을 소개했다. 합동군 2025는 해외 파견 부대 인력을 2025년까지 최대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증원하는 군사력 증설 계획이다. 대폭적인 인력 축소를 예고했던 이전 SDSR 문건들과는 다르게 2015년도 SDSR은 영국군의 병력을 현재 수준인 8만 2,000명 이하로 축소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축소 역시 불가피하여 2020년까지 국방부 내 민간인력을 30% 축소해 4만 1,000명으로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 2017년 7월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2015년도 SDSR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영국 국가 안보 능력을 심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같은해 6월 총선에 과반수 정부 구성에 실패함에 따라 광범위한 정부 지출 심사를 사전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 2017년 중반 영국 정부는 국방, 안보, 정보 활동, 테러 방지 활동, 사이버 안보 부문에 대한 지출 요구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가안보능력보고서(National Security Capability Review, NSCR) 작성에 착수했고, NSCR은 2018년 3월 발표됐다. 2018년 1월 이 보고서의 국방 부문은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정책인 국방 현대화 프로그램(Modernising Defence Programme, MDP)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MDP는 2018년 12월 발표된 28쪽 분량의 짧은 보고서로 대부분 기존 정책을 재언급하고 있다.³⁾

3. 위협 요소⁴⁾

가. 테러

- 2016~2017년 사이 영국내 여러 건의 테러가 발생하면서 테러가 주요 안보 문제로 대두되었다. 가장 큰 위협 요소는 국제 테러 단체 ISIS이며, 이로 인해 영국내 테러 위협 수준은 1970년 이래 최고 수준에 달하였다. 2016년 영국과 미국의 여러 정보 조직이 런던에서 테러 공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영국 정부는 군중이 밀집한 장소를 특별 보호하기 위해 영국내 중요 기반시설 보안을 담당하는 국가기반시설보호센터(Centre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 CPNI)를 지원하는 경찰 조직인 국가대테러안보실(National Counter Terrorism Security Office, NaCTSO)을 설립하였다. 영국이 이라크 및 시리아 분쟁에 개입한 이후 테러 공격 건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올바른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많은 테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테러 공격은 정부 건물, 쇼핑몰, 술집, 경찰차, 별장, 나이트클럽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 2017년에 3건의 대규모 테러 공격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공격은 2017년 3월 22일 웨스트민스터에서 발생했으며 50명이 중상을 입었다. 2017년 5월 22일에 벌어진 두 번째 사건은 맨체스터 아레나(Manchester Arena) 폭탄 테러로, 59명이 중상을 입고 22명이 사망했다. 2019년 9월 15일에 발생한 세 번째 사건은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로, 29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영국이 중동에서의 군사 작전에 직접 참여하면서 영국 본토가 테러 공격의 주된 표적이 되는 일이 늘었다. 그 외에도, 시리아 내전 중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져 유럽 지역으로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었다. 영국 정부는 테러분자가 이민자와 난민 틈에 섞여 유럽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결국 더 많은 테러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테러에 맞서 싸우고 국경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개별 승객 상세 정보를 수집하여 영국 경찰·안보·이민 감시 목록과 이를 대조하는 전자국경(e-Border) 체계를 도입했다. 그 외에도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기 위해 모든 공항에 전신 스캐너, 탑승권 스캐너 같은 장치를 설치하는 중이다.
-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Taliban)과 알카에다(Al-Qaeda)를 상대로 국제 군사 작전을 개시한 이래로 극단주의 단체의 영국 내 테러 활동이 크게 늘어났다. 영국이 미국과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은 테러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더욱 높이며, 유럽 내 극단주의 단체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면서 영국 내 테러 위협이 더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파리와 브뤼셀에서 테러 공격

3) Jane's IHS Markit, Market Report - United Kingdoms

4) Future of the UK Defense Industry - Market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s to 2022, Strategic Defence Intelligence

이 벌어져, 영국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국제 테러 활동으로 인해 영국이 현재 겪고 있는 위협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여겨지며 최근 몇 년 사이 영국 전역에서 여러 건의 테러 공격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2013년 9월에는 자살 테러 공격이 계획되었으나 이 음모를 시행하려 한 혐의로 테러범 11명이 체포되면서 실제 공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013년 7월에는 '인종 전쟁'을 일으키고자 한 우크라이나 학생 파블로 라프신이 폭발장치를 이용해 틱턴(Tipton)에 있는 모스크를 공격했다.

- 최근 10년간 테러 위협이 크게 증가했으며 영국 전역에서 테러 공격이 이어졌다. 2005년 7월에는 영국 안보망의 허점을 보여준 런던에서 대규모 테러 공격이 있었으며 2016년 3월, SAS(Special Air Service)와 영국 경찰은 영국에서 10건의 테러 공격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또한 2017년 1월에는 국경 보안 절차에 결함이 있어 범죄자와 테러분자가 아무 신분증 없이도 유로스타(Eurostar)를 타고 쉽게 영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해 영국은 국경 보안과 국내 안보를 강화하는 데 상당 규모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항 보안 개선을 위한 주요 기술 통합이 이미 진행 중인데, 여기에는 생체인식 전자 접근 제어, 승객 보안검색대, 수하물용 폭발물 탐지체계, 첨단 승객 수속체계가 포함된다. 철도와 기타 공공교통수단을 포함한 대중교통체계는 테러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쉬우며, 영국 국방부에서 감시체계, 자기진단 자동 무선 영상 다운로드 장치, 혁신적 승객 보안검색대 같은 보안 장비를 설치했다.

나. 사이버전

- 인터넷 및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범죄자와 테러 단체의 공격에 대한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수백만 명에 달하며 인터넷을 통해 중요한 정보가 전송된다. 사이버 공격은 항공 관제, 은행 시스템, 가스관, 전력 기반시설 같은 영국의 주요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이버 테러 및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사건이 수없이 많이 발생했다. 테러 단체는 자신들의 이념을 확산하고 사람들을 단체에 끌어들이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다. 2016~2021년 국가사이버보안전략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에 따르면, 영국은 두 가지 유형의 사이버 범죄에 맞서고 있다.
 - **사이버 의존(cyber-dependent) 범죄:**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장치를 이용하여 자행될 수 있는 범죄로서, 그러한 장치가 범죄의 표적이자 범죄를 저지르는 도구이다.
 - **사이버 가용(cyber-enabled) 범죄:** 컴퓨터 네트워크나 컴퓨터, 기타 형태의 ICT를 이용함으로써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범죄로서, 데이터 절도와 사이버 사기가 그 예다.

다. 러시아

- ❖ 러시아의 미사일 및 핵 개발 사업 또한 영국의 주된 안보 위협이다. 러시아는 최근 몇 년 동안 멀리 있는 표적을 타격할 첨단 탄도미사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기술을 완성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이 지역 내 안보 균형을 방해해 왔다. 러시아가 가하는 위협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영국 영공을 둘러싼 러시아의 장거리 핵폭격기로서, 영국은 이로 인해 최악의 두려움을 깨닫게 되었다. 2016년 러시아 잠수함 승조원들의 초계 활동 일수가 3,000일 이상일 정도로 잠수함 전투 초계일수가 증가하였으며 핵폭탄을 장비한 러시아 잠수함은 영국 전역의 취약 표적을 쉽게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

4. 국방 전략

가. 군사 교리 및 전략

- ❖ 영국은 '영국 국방교리(United Kingdom Defense Doctrine, UKDD)'로 알려진 자체 교리에 작전 개념과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UKDD의 주된 목표는 방위 행동 중 완벽한 전략 및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방부 당국 지침에 따라 방위 병력(현역 및 예비역)을 활용하는 것이다. UKDD에는 그 외에 NATO와의 합동작전을 위한 방위 계획 및 이행과 연합군과의 다국적 작전 원칙도 설명되어 있다. 영국의 여러 연방국들이 UKDD를 바탕으로 자체 교리를 마련했다.
- ❖ UKDD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 영역에 중점을 둔다.
 - 운용 경험 및 정책
 - 정부 전체 및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
 - 방위 교전 및 비상사태
 - 종합적 접근법 채택

나.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UN 적극 지원

- ❖ 영국은 UN이 후원하는 평화유지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지원한다.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영국 육군 인력 694명이 UN 평화유지 임무에 참여 중이며, 그 외에도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에 9,500명의 병력을 배치하여 2014년부터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군사 지원을 제공해 왔다. 영국군은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보스니아,

부룬디, 캄보디아, 콩고,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시리아 같은 분쟁국 내 평화유지 작전에 참여했다. 영국은 UN 키프로스 평화유지군(UN Peacekeeping Force in Cyprus, UNFICYP), UN 콩고민주공화국 안정화임무단(United Nations Organization Stabilization Mission in the DR Congo, MONUSCO), UN 수단 임무단(UN Mission in Sudan, UNMISS), UN 말리 안정화임무단(United Nations Multidimensional Integrated Stabilization Mission in Mali, MINUSMA)의 평화유지 작전을 위해 병력을 배치했다. 영국 정부는 또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및 조지아 내 EU 평화유지 작전도 지원했다.

다. 육군 현대화

- 영국 육군은 유럽 대륙 최대 규모의 상설군 중 하나이다. 영국은 국방 장비 현대화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에 따라 영국 육군이 테러 위협 및 국경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장비에 대한 정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영국 육군은 2015년에 미국으로부터 페이브웨이(Paveway) 유도폭탄 750기와 AGM-114K 헬파이어(HELLFIRE) 500기를 조달했으며, 이는 2016년에 납품이 완료되었다. 영국은 또한 2015년 FMC(FMC Corporation)사에 AAV-7RAM/RS 병력수송장갑차 23대를 발주했는데, 해당 차량은 2018년에 납품될 예정이다.

라. 사이버 보안

- 정보 시스템, 인터넷, 기타 기반시설간 연결성이 높아지면서 영국 사이버 보안 분야는 많은 난관을 마주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 증가에 발맞춰, 사이버 위협에 맞서 국가 정보·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중요 기반시설, 정부·민간 시스템, 경제를 방어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사이버 공간 보안을 위한 국가사이버보안전략 예산은 1,134.9달러이다. 2016~2021년 국가사이버보안전략에서는 3단계 비전을 내세웠다.
 - **방어:** 이는 발전하는 사이버 위협에 맞서 영국을 방어하고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영국 시스템·데이터·네트워크의 보호와 회복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단계이다.
 - **저지:** 국가사이버보안전략팀에서 영국에 대한 적대적 행동을 탐지·조사·차단·파악한다.
 - **개발:** 국가사이버보안전략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사이버 보안업계 혁신과 성장을 위해 투자 중이다.

마. 군사 규모

[표 1-1] 영국 육군 전력

영국 육군	전력
병력	
- 정규군	~81,920
- 예비군	~29,940
장갑차량	
- 챌린저(Challenger) 2(전차)	227
- CVR(T)	654
- 워리어(Warrior)	769
- 불독(Bulldog)(장갑전투차량)	895
- 마스티프(Mastiff) 기동차량	396
- 자칼(Jackal) 기동차량	437
- 리지백(Ridgback)	168
- 울프하운드(Wolfhound)	125
- 허스키(Husky)	311
- 폭스하운드(Foxhound)	398
- RWMIK 랜드로버(Land Rover)	371
- 팬서(Panther)	401
- TPz 폭스(Fuchs)(화생방·핵(CBRN) 정찰)	11
포	
- GMLRS(로켓포)	35
- L131 AS-90	89
- L118 경량포	126
- 레이피어(Rapier)	24
- 스타스트릭(Starstreak) SP HVM	62
- 스타스트릭 LML	145
- 트로얀(Trojan)	32
- 테리어(Terrier)	60
- 알비스(Alvis)사 유니파워(Unipower)	139
- M3 수륙양용 부교차량(Amphibious Rig)	37
항공기	
- 아구스타웨스트랜드(AgustaWestland)사 아파치(회전익기)	50
-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 AW159 와일드캣(Wildcat)(회전익기)	30
- 벨(Bell)사 212(회전익기)	5
- 브리튼노먼(Britten-Norman)사 디펜더(Defender)(프로펠러 항공기)	9
- 브리튼노먼사 아일랜드어(Islander)(프로펠러 항공기)	3

- 유로콥터(Eurocopter)사 AS365 돌핀(Dauphin) II(회전익기)	5
- 탈레스(Thales)사 워치키퍼(Watchkeeper) WK450(무인기)	52
- 웨스트랜드(Westland)사 가젤(Gazelle)(회전익기)	34
- 웨스트랜드사 링스(Lynx)(회전익기)	21

출처: 영국 국방부 및 SDI 분석

[표 1-2] 영국 공군 전력

영국 육군	전력
병력	
- 정규군	~33,240
- 예비군	~2,220
수송기	
- 아구스타(Agusta)사 A109	1
- 에어버스(Airbus)사 A400M 아틀라스(Atlas)	16
- 에어버스사 보이저(Voyager)(급유기)	14
- 보잉사 치누크	60
- 보잉사 C-17A 글로브마스터(Globemaster) III	8
- 브리티시에어로스페이스(British Aerospace)사 146	4
- 록히드사 C-130J 허큘리스(Hercules)	24
- 웨스트랜드사 푸마	23
- 아브로(Avro)사 RJ	2
훈련기	
- 비치크래프트(Beechcraft)사 킹에어(King Air)	7
- 브리티시에어로스페이스사 호크(Hawk)	101
- 그롭(Grob)사 비질런트(Vigilant)	15
- 그롭사 바이킹(Viking)	73
- 그롭사 G115E 튜터(Tutor)	118
- 쇼트 투카노(Short Tucano)	78
- 캐나다 드하빌랜드(De Havilland Canada)사 칩멍크(Chipmunk)	2
- 비치크래프트사 어벤저(Avenger)	4
- 그롭사 G115E 튜터(해군 항공대)	5
- 벨사 그리핀(Griffin)	11
- 유로콥터사 AS350 스쿼렐(Squirrel)	34
- 쇼트 투카노	2
- 다소(Dassault)사/도르니에(Dornier)사 알파제트(Alpha Jet)	4

- 비치크래프트사 T-6 텍산(Texan) II	4
- 엠브라에르(Embraer)사 페놈(Phenom) 100	2
- H135 주노(Juno)	13
- H145 주피터(Jupiter)	3
- 브리티시에어로스페이스사 호크	3
다목적 항공기/공격기	
- 유로파이터(Eurofighter)사 타이푼(Typhoon)	143
- 제너럴아토믹스(General Atomics)사 MQ-9 리퍼(Reaper)	10
- 록히드마틴사 F-35B 라이트닝(Lightning) II	11
- 파나비아(Panavia)사 토네이도(Tornado) GR4	78
-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 AW159 와일드캣	28
- 사브(Saab)사 JAS 39 그리펜(Gripen)	1
- 웨스트랜드사 링스	21
- 벨사 212	5
-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 AW159 와일드캣	30
-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 아파치	50
- EH(EH Industries)사 EH101 멀린(Merlin)	55
전투기/폭격기	
- 아브로(Avro)사 랭카스터(Lancaster)(PA474)	1
- 호커(Hawker)사 허리케인(Hurricane)	2
- 슈퍼마린(Supermarine)사 스피트파이어(Spitfire)	7
- 페이리(Fairey)사 소드피시(Swordfish)	2
- 호커사 헌터(Hunter)	3
초계기	
- 웨스트랜드사 가젤	34
- 유로콥터사 AS365 돌핀 II(다용도)	5
- 벨사 그리핀	4
- 브리튼노먼사 디펜더	9
- 브리튼노먼사 아일랜드	3
- 아구스타사 A109	2
- 웨스트랜드사 시킹(Sea King)	1
무인기	
- 보잉-인시투(Boeing-Insitu)사 스캔이글(ScanEagle)	3
- 제너럴아토믹스사 MQ-9 리퍼	10
- 탈레스사 워치키퍼 WK450	52

출처: 영국 국방부 및 SDI 분석

[표 1-3] 영국 해군 전력

영국 육군	전력
병력	60,000*
해군 참모총장 기함	
- HMS 빅토리(Victory)	1
잠수함대	
- 뱅가드(Vanguard)급	4
- 아스튜트(Astute)급	3
- 트라팔가르(Trafalgar)급	3
수상함대	
- HMS 오션(Ocean) L12	1
- 알비온(Albion)급	2
주요 수상전투함	
- Type 45/데어링(Daring)급	6
- Type 23/듀크(Duke)급	13
원양초계	
- 리버(River)급	4
소해	
- HMS 레드버리(Ledbury) M30(헌트(Hunt)급)	4
- HMS 치딩폴드(Chiddingfold) M37(헌트급)	4
- HMS 펜잔스(Penzance)(샌드다운(Sandown)급)	7
고속순시	
- P2000/아처(Archer)급	16
- 시미타(Scimitar)급	2
측량	
- 에코(Echo)급	5
고정 상태	
- Type 82/브리스틀(Bristol)급	1

출처: 영국 국방부 및 SDI 분석

제 2 절 정치·경제 상황

1. 정치 환경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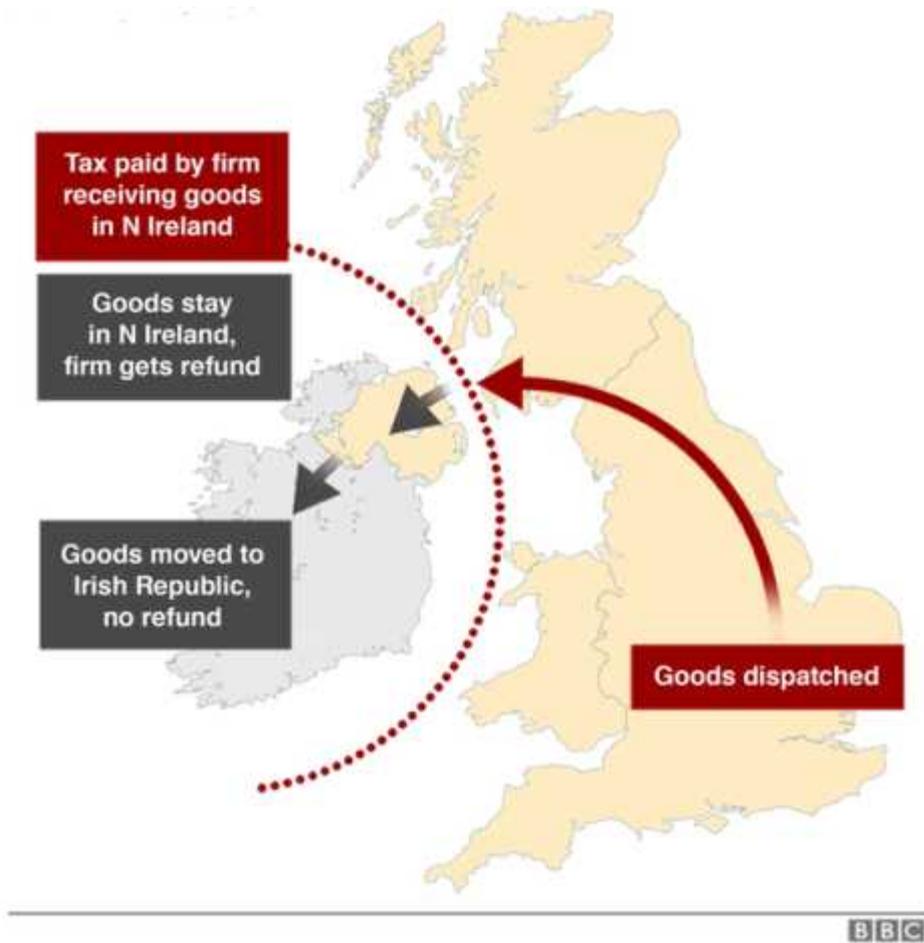
- ▣ 영국은 근대 의회민주주의의 발상지이며 오늘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나라이다. 입헌군주제에 따라 군주의 통치를 받는 단일 국가이며 군주의 권한 행사는 내각의 조언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 외회는 상원(The House of Lords)과 하원(The House of Commons)의 양원제로 이루어지고, 총리는 하원의 과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이다. 총리는 의원내각제에 의해 내각을 구성하고, 야당은 예비 내각을 구성하여 정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한다.
- ▣ 영국은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의거 정부는 5년의 임기를 지낸다. 의석이 2/3 이상의 과반수인 경우나 불신임 결의가 성공하는 경우 총선을 앞당길 수 있다.
- ▣ 70년 만에 최초로 2010년 중반에 형성한 완전 연립정부의 발족과 2017년 총선 후 형성된 소수 행정부, 그리고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국론 분열에도 영국의 정치 환경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형세를 유지했다.
- ▣ 중도우파가 의회 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영국 정치에서 전통적으로 제3정당 자리를 지켜 왔고 역사적으로 영국 정치에서 중심적 자리를 유지해 온 자유민주당과 연합을 형성하면서, 2010년 5월 중도좌파 노동당이 지속해 온 13년의 정치는 막을 내렸다. 양당 간의 연합은 2015년 5월 의회 전 회기가 끝날 때까지 존속됐다.
- ▣ 영국 최대 규모의 두 정당인 중도좌파 노동당과 중도우파 보수당 둘 중 어느 하나도 우세를 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5년 5월 총선에서 연립정부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보수당이 가까스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여 독립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하였다. 당시 영국 총리였던 데이비드 캐머런이 2015년 3월 제3차 총리 임기를 지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캐머런은 공약으로 내건 영국의 유럽연합 회원자격 국민투표에서 패배해 2016년 6월 24일 사퇴를 발표했다. 2016년 가을 당수 선출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무산되었고, 2016년 7월 전까지 6년간 내무부 장관을 지낸 테리사 메이가 2016년 7월 총리로 임명됐다.
- ▣ 메이 총리가 2017년 4월 총선을 제안했고 선거는 2017년 6월 8일 치러졌다. 2017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도적인 과반석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수당이 과반석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고, 총의석 650석 중 317석이라는 과반에 근접한 의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보수당은 '신임과 공급' 제도를 기반으로 의회의 지지를 얻어 소수 정부를 형성하고자 10개 의석을 차지한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과 협상에 들어갔다.

- 2019년 총선에서는 중도우파 보수당이 과반석을 차지하여 보리스 존슨 총리가 임명되었다.

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 현재 영국이 직면한 최우선의 정치적 난제는 영국과 유럽연합과의 관계이다. 중도 우파 보수당은 2015년 5월 총선에 앞서 영국의 유럽연합 회원자격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약속했다. 투표는 2016년 6월 23일 열렸고 투표율이 72%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관심속에 치러졌다. 개표 결과 유럽연합 탈퇴가 근소한 차이로 과반수(52% 대 48%)를 얻었다.
- 2017년 3월 25일 메이 총리가 리스본 조약 제50조를 발동 시키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당시 탈퇴 예정일은 협상시작일 기준 2년 뒤인 2019년 5월 29일이었는데 협상이 지연되면서 협상기일은 두차례 연장되어 2019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메이 총리는 세 번째 수정안을 하원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2019년 6월 7일 총리직을 사퇴하게 된다.
- 메이 총리의 탈퇴안에서 핵심이 되었던 사안은 '아일랜드 안전장치(Irish Backstop)'이다. 아일랜드 안전장치란 브렉시트 협상이 아무 무역 협약 없이, 즉 '노딜(no deal)'로 끝날 경우, 북 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관세를 위해 국경을 통제하는 '하드보더(hard border)'가 들어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북 아일랜드와 아일랜드는 1960년 북아일랜드 분쟁으로 인해 무력적, 민족적 및 종교적 갈등을 겪었으며, 하드보더가 들어서 경우 이러한 분단 및 갈등의 기억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일랜드 안전장치'가 도입된 것이었다. 하지만, 많은 하원 의원들이 안전장치가 영국이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였다.
- 메이 총리 사퇴후 보수당내 경선을 승리한 보리스 존슨이 2019년 7월부터 새로운 총리로 부임하였다. 존슨 신임 총리는 '안전장치' 대신 새로운 관세 제도를 내세웠다. 새로운 관세제도가 적용이 된다면,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가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적용하되, 해당 물품이 북 아일랜드에 머물게 되면 관세를 환급해주고, 아일랜드로 가는 경우에는 환급해주지 않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에도 북 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간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에 대해 관세 통제를 하는 이른바 '소프트보더(soft border)'는 존재하지만, 이 제도하에는 다른 국가들과 자유롭게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를 얻었고 결국 2019년 12월 12일 영국총선에서 보수당이 과반석을 차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림 1-3] 유럽연합 탈퇴 수정안(소프트보더)

* 출처 : BBC News

- ❖ 소프트보더를 포함한 존슨 총리의 탈퇴안을 담은 탈퇴 법안은 12월 20일 358명의 하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짐에 따라(반대 234명) 하원을 통과하였다.
- ❖ 유럽연합도 탈퇴안을 수용하면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유럽연합을 공식적으로 탈퇴하게 되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전환기간을 거치게 된다. 전환기간 동안엔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럽연합 국가들과 무역을 할 수 있다.
- ❖ 영국은 전환기간 동안 새로운 무역 협정 뿐만 아니라, 법 집행, 데이터 공유, 안보 등 많은 분야에서 유럽연합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경제 환경

가. 경제 개요

- 영국 경제는 세계 6위이자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경제 정책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이다. 영국 경제는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장기간 GDP가 매년 평균 3.3%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평균 1.8%를 유지하면서, 탄탄한 저인플레이션 성장기를 거쳤다. 하지만 2008년 경제가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2008-09년 세계 경기 침체에 의해 특히 큰 타격을 받게 된다. GDP는 2008년 1분기 최고치를 보이다 2009년 2분기에 7.2% 하락하며 곤두박질쳤다. 영국경제는 2013년까지 간헐적으로 서서히 회복했다. 2013년 경제가 진전을 보이면서 호조세가 탄력을 받기 시작해 2014년에 안정을 찾았다. 2016년 말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4.7%를 기록했다.
- 영국의 경제 문제는 과평가된 주택 시장과 소비자 부채 수준의 상승에 금융부문 타격이 맞물리면서 세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또한 교육과 보건 등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과 투자를 늘리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공금융 부문은 눈에 띄게 악화됐다.⁵⁾
- 2016년 6월 23일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경제 전망에 변화의 조짐이 포착됐다. 영국은 2017년 3월 말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유럽연합에 공식서한을 전달하면서 공식탈퇴 절차를 개시했고, 2019년 3월에 2년 기한 탈퇴 초읽기에 돌입했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은 2016년 6월 23일 발표 이후 상당 부분 안정화되었다.

[표 1-4] 영국 경제 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GDP (10억 달러)	2636.87	2683.69	2723.45	2757.75	2793.44	2839.45	2896.43	2951.24
GDP 성장(연간 %)	2.375	1.775	1.482	1.26	1.294	1.647	2.007	1.892
물가상승률 (연간 %)	0	0.7	2.7	2.9	2.5	2.1	1.9	1.9

출처: IHS Global Insight

5) Jane's IHS Markit, Market Report - United Kingdoms

나. 기업 환경

- ❖ 영국의 법제도는 성문헌법이 없는 관계로 판례, 선례, 법령에 근거한다. 영국 법제도는 성숙하고 효율적이며 일관되고 국내외 기업활동에 안정적인 환경과 체계를 제공한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일어난 회계부정 사건들로 인해 영국 기업법 환경에 상당한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도 영국 노동법과 이민법에 실제적인 개혁이 시행됐다.
- ❖ 영국의 기업환경은 매우 양호하며, 영국은 지난 수년간 세계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한 국가 중 하나이다. 현 정부는 영국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면서 고용주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노동시장의 규제를 완화했다. 영국은 광범위한 교통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대화와 투자가 요구된다. 투자 부족 실태는 열악한 철도 상황이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주요 투자 사업이 실행되는 과정에 있어 화물과 여객 서비스에 자주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관료 체제는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보다 더욱 생산성을 증대하고자 한다.
- ❖ 노동조합은 지난 20년간 힘을 크게 상실했다. 이는 대중교통조합과 제조업을 대표하는 조합 등의 특정 조합들은 다소 공격적인 성격을 띠지만 전체적으로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파업이 상대적으로 드문편이다. 연립정부가 재정 정책을 시도하면서 파업 횟수가 증가했으나, 장기적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희박하다. 영국 내 다수 존재하는 저고도 지역은 흉수에 취약하나 관련 재난에 대한 소방당국의 대응은 신속하고 조직적이다. 부정부패는 드물고 영국에 만연한 문제가 아니다.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제2장

조달 정책 및 제도

제 2 장

조달 정책 및 제도

제 1 절 조달 정책 및 전략

제 2 절 예산 편성 절차

이 면은 공백임

제 1 절 조달 정책 및 전략

1. 조달 정책⁶⁾

가. 조달 정책

- ❖ 영국 방산조달 정책 및 절차는 최근 몇 년간 개혁 및 개선을 거듭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왔으며 현재에도 이러한 과정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가장 큰 변화는 영국 방산장비지원청(Defence Equipment & Support, DE&S, 영국 방산조달기구)의 위상과 책임의 변화이다. 장비조달 및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적 책임은 각 군사령부로 위임 되었으며 DE&S는 장비,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국방부 산하 조달기관으로 재편되었다.
- ❖ 2015 SDSR 개정판을 만들기 위해 군사목표 및 능력을 광범위하게 검토한 영국의 방산사업 현대화(Modernising Defence Programme, MDP) 검토서가 2018년 12월 발행되었다. 더욱 효율적인 조달과정을 지원하고, 중앙통제체계를 완화하여 각 군에 더 많은 권한 위임을 위한 DE&S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MDP는 현재 진행 중이던 국방조달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발행되었다.
- ❖ 영국의 방산조달 절차는 2015년 4월 이후로 정착된 획득체계 운영모델(Acquisition System Operating Model, ASOP)에 의해 정의된다.
- ❖ 영국은 2020년 1월부터 유럽연합을 탈퇴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며, 정부는 이때부터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로부터 적용된 제한사항을 제거하기 위해 조달법률 및 절차를 개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 무기체계별로 하나의 체계업체에 의존하기 보다는 업체간 경쟁 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한다.

나. 획득절차지침(Acquisition System Guidance, ASG)

- ❖ 영국 국방부의 획득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defencegateway.mod.uk)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속권한은 다음과 같은 주소를 통해 국방부에 요청할 수 있다: sts.defencegateway.mod.uk/register.aspx.

6) Jane's IHS Markit, Market Report - United Kingdoms

다. 계약·구매·재정지원 도구

- 국방부는 2015~2016년 기간 중 모든 조달활동을 단일 온라인 포털로 이동시켰다. 계약·구매·재정지원(Contracting, Purchasing and Financing, CFP) 체계는 2015년 말에 구축되었으며 2016년 말 공급업체 및 조달당국에 배포되었다. CFP 체계에는 계약공고, 입찰, 대금지불, 송장 및 계약체결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체계는 기존의 종이서류에 기반을 둔 온라인 자료들을 대체하였다.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od-contracting-purchasing-and-finance-e-e-procurement-system/contracting-purchasing-and-finance-cpf-tool.

라. 조달 기관

- 방산획득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국방장관에게 있으나, 조달활동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주무 기관은 국방부 산하 DE&S이다.
- 영국 방산조달 네트워크 내의 주요한 조직 및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국방부 본청(MoD Head Office)**: 정책, 자원할당, 감독, 전략지시 하달을 하며, DE&S를 통제한다.
 - **군사령부(The military commands)**: 각 군 사령부는 관할 영역에 대한 최고수준의 예산책임을 갖게 되며, 여기에는 조달 자금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군사령부는 DE&S가 제공하는 작업계획에 동의한다. 군사령부에는 해군사령부, 육군사령부, 공군사령부, 합동군사령부가 있으며, 합동군사령부는 화생방핵(CBRN), 정보/사이버능력, 전자대응책, 특수부대소요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전략·복합 무기조달은 국방부 본청 소관사항이다.
 - **신속획득기구(Armed services – rapid acquisition organisations)**: 2018년부터, 영국군 및 합동군사령부는 신속획득을 위해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했다.
 - **방산장비지원청(Defence Equipment and Support, DE&S)**: 국방부 산하 조달기관이다. 군사령부가 식별하고, 자금지원을 하는 군에게 방산장비지원청은 장비, 서비스, 지원을 제공한다. DE&S는 국방부 본청 산하 직속기관으로서 영국 정부는 맞춤형 무역기관으로 부르고 있다.

- **정보체계서비스국(Information Systems and Services, ISS):**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능력을 제공하는 책임을 수행한다. 이러한 분야에서 DE&S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본청 산하 합동군사령부 내에 설치되어 있다.
- **방산기반시설청(The Defence Infrastructure Organisation, DIO):** DIO는 국방부의 재산 기반시설을 관리하며, 국방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전략적 관리를 지원한다. DIO는 획득 체계 운영모델 외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마. 감독

- ❖ **방산위원회:** 최상위 감독은 방산위원회가 실시한다. 방산위원회는 국방장관이 주재하며, 방산 조달장관, 상임사무차관(고위 민간공무원), 국방참모총장 및 차장, 비집행위원 4명 중 한 명으로 국방부 재정국장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방산위원회는 매달 회의를 하며, 비작전 품목에 대한 주요한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 방산위원회는 산하 투자승인위원회를 통해 주요 투자제안을 검토한다.
- ❖ **획득체계 방산당국:** 국방부 본청 국장 및 위탁체제가 획득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국방부 방산담당 사무차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바. 조달 절차

- ❖ 영국의 방산조달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국방부 본청이 획득 및 전체적인 소요에 대한 예산 한도를 2010년부터 5년마다 발간되고 있는 SDSR을 기반으로 설정한다.
 - 각군사령부(육군, 공군, 해군, 합동군)가 자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요를 설정한다.
 - DE&S와 ISS가 각 군 사령부 소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조언하고, 군사령부와 합의에 도달하면, 이를 제공하는 책임을 수행한다. DE&S와 ISS는 또한 업계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수행한다. 각 군 사령부와 DE&S와의 관계는 군사령부획득지원계획(소요, 의무, 납품제품, 측정기준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6 회계연도(FY 2016)부터 각 군 사령부와 ISS 간의 관계가 이에 상응하는 정보서비스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 국방과학기술연구소(과학적 이해 및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국방연구사업 수행)와 방산기반시설청이 필요에 따라 자문한다.

사. 법률·규정

- 영국의 방산조달은 유럽연합 방산보안지침 제2009/81/EC호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 영국은 유럽연합의 이 지침을 바탕으로 제정한 2011년 방산보안 공공계약규정 (Defence and Security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DSPCR 2011), 2006년 공공계약규정, 2006년 공공계약규정(스코틀랜드), 2006년 유틸리티 계약규정, 2006년 유틸리티 계약규정(스코틀랜드) 등을 적용하고 있다.
- 2011년 방산보안 공공계약규정 (DSPCR 2011) 전문은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european-union-defence-and-security-public-contracts-regulations-dspcr-2011

- 위 규칙은 2011년 8월 31일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재정 범위 및 기준 내에 있는 군용장비, 민감한 보안장비 및 관련 상품, 작업, 서비스 조달을 위해 새로운 조달절차를 구체적으로 확립했다.
- 이 정책에는 다수의 예외조항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계약에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 이 정책을 적용할 경우, 영국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이익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정부가 다른 정부와 다음 조항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본협정을 체결해야 할 때:
 - (i)군사장비 또는 민감한 장비의 공급, (ii)이러한 장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작업 또는 서비스, (iii)특정 군사적 목적을 위한 작업 및 서비스, 또는 민감한 작업 및 민감한 서비스
 - 정보활동과 관련이 있는 계약
 - 양자 및 다자 정부간 개발·조달사업과 관련된 계약
 - 국제기구(유엔 등)의 목적을 위해 국제기구의 특정 절차상 규칙 내에서 체결하는 계약

아. 획득절차의 변화

- DE&S 위상: 2014년 4월 방산조달을 집행하고, 지원하는 책임을 수행하는 조직인 DE&S가 상업적으로 지원되는 맞춤형 중앙정부무역기관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표로 3년간의 전환 및 변혁사업을 시작했다.
- 중요한 변화내용 중에는 DE&S와 나머지 국방부 기관 사이에 확실한 경계선 도입, 독립 위원장 아래

강력한 위원회를 구비한 별도의 관할·감독 구조, 의회에 책임이 있는 대표 책임자 도입 등이 있다.

- 민간 부문 도입은 사업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일련의 지원 계약을 통해 달성하는 한편, DE&S의 내부 능력을 발전시킨다. 계약을 통해 사업관리, 인적자원, 재정통제 등 3개 분야에서 계약업체를 지원한다.
- 영국 정부는 DE&S에 적용할 '정부소유, 계약업체 운용'(government-owned, contractor-operated, GOCO) 준민영화 계획을 연구했으며, 이 계획안은 예상 입찰업체의 풀이 제한되어 2013년말 보류되었다.
- '정부소유, 계약업체 운용'(GOCO) 모델을 통해 개혁을 하는 메커니즘은 2014년 제정된 영국 방산개혁법을 통해 법조문 속에 남아 있다.
- 개정된 조달절차: 영국의 방산획득체계는 2015년 4월부터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비 및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책임이 DE&S에서 각 군 사령부로 이전
 - DE&S는 각 군 사령부 내 장비 및 지원 조달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수행
 - 합동군사령부 내 정보체계서비스국(ISS) 설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사업 추진·수행
 - 획득체계 방산당국을 설치하여 체계 건전성을 책임지도록 하고, 표준 및 유지 관리체제를 확립하였다.

자. 입찰 절차

- 국방부 획득체계지침(Acquisition System Guidance, ASG)이 최고수준에서 국방부가 방산 획득과정을 실행, 관할, 통제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획득체계지침은 포괄적인 지침으로서 국방부 획득업무의 모든 면을 다루고 있고, 국방부와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획득체계지침은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에 연결하여 등록된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다:

www.gov.uk/guidance/acquisition-operating-framework
- 방산보안 공공계약규정(DSPCR)에 따른 기본적인 조달절차에는 제한경쟁 절차, 사전 계약 공고문을 발표한 이후 협상절차 등이 있다. 매우 복잡하여 기본적인 절차로 진행이 어려운

계약의 경우, 경쟁적 대화 절차가 사용된다.

- 제한경쟁 절차: 공개 제안과정으로서 공고문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발표하여 입찰 제안을 요청한다. 그 이후, 사업 요구조건을 기초로 경쟁입찰과정을 시작한다.
 - 협상절차: 국방부는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들을 초청하고, 이들 중 1개 이상의 업체와 계약조건을 협상한다. 이는 계약 공고의 사전 공개 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 경쟁대화절차: 국방부가 매우 복잡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공고문을 사전 공개한 후 협상절차를 사용하거나, 제한된 절차를 사용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하다고 고려될 경우 이 절차를 사용한다.
- 위 절차 선정이 완료되면, 이 후에는 모든 조달에 적용 하는 공통 입찰절차를 거친다.
- 온라인 입찰 입찰기회는 온라인으로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contracts.mod.uk

The screenshot shows the DCO website interface with a search results table. The table has columns for Flag, Docs, Publication Date, Title and Description, Country, Notice Type, and Cyber Essentials Required. It lists 10 procurement notices, all from the United Kingdom, with various titles such as 'GB-Newport: 179 Residential Units & Commercial Units (Civil)' and 'United Kingdom-London: Procurement of Criminal Defence Direct Services (CDD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from 1.6.2020 (Defence)'. Each row includes a checkbox, a document icon, the publication date, a brief description, the country, the notice type (e.g., Commercial Project, adden, notice, award), and a 'Required' status for Cyber Essentials.

Flag	Docs	Publication Date	Title and Description	Country	Notice Type	Cyber Essentials Required
<input type="checkbox"/>		04/02/2020	GB-Newport: 179 Residential Units & Commercial Units (Civil)	United Kingdom	Commercial Project	
<input type="checkbox"/>		04/02/2020	GB-Portsmouth: Provision of Mountain Bikes and Ancillaries for the Combined Cadet Force (Defence)	United Kingdom	adden	Required
<input type="checkbox"/>		04/02/2020	GB-Portsmouth: Provision of a Smart Working Environment fo Leach Building, Navy Command Headquarters (Defence)	United Kingdom	notice	Required
<input type="checkbox"/>		03/02/2020	GB-Portsmouth: Provision of Mountain Bikes and Ancillaries for the Combined Cadet Force (Defence)	United Kingdom	notice	Required
<input type="checkbox"/>		03/02/2020	Provision of Mountain Bikes and Ancillaries for the Combined Cadet Force (Defence)	United Kingdom	notice	Required
<input type="checkbox"/>		03/02/2020	United Kingdom-Bristol: Diving wear (Defence)	United Kingdom	notice	Required
<input type="checkbox"/>		03/02/2020	United Kingdom-London: Procurement of Criminal Defence Direct Services (CDD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from 1.6.2020 (Defence)	United Kingdom	notice	Required
<input type="checkbox"/>		03/02/2020	United Kingdom-Bristol: VEAT for Total Support of N700/700+ and N200/N2000A Series Night Vision Goggles and Associated Equipment (Defence)	United Kingdom	award	Required
<input type="checkbox"/>		03/02/2020	United Kingdom-Portsmouth: Provision Of PAC24 To USV And Fleet Minor Trial (Defence)	United Kingdom	award	Required
<input type="checkbox"/>		03/02/2020	United Kingdom-Andover: Provision of Forensic Scientific Support and Reporting to the Service Police (Defence)	United Kingdom	award	Required

[그림 2-1] 영국 국방부 입찰정보 홈페이지(www.contracts.mod.uk)

2. 조달 전략⁷⁾

가. 공개경쟁

- ❖ 영국 방산보안 장비·지원·기술백서에 의하면, 국방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가능한 경우 기성품(off-the-shelf)을 구매하는 것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틈새 분야의 국가 생산 능력을 보호하는 것이다.
- ❖ 이를 통해 영국 업체 또는 영국에게 IP를 이전하려는 업체는 제한된 독립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분야에는 안전한 정보, 통신, 전자전 및 관련 방어기술, 중요한 하부체계, 핵억제력과 같은 플랫폼에 중요한 비밀 정보에 대한 접속 권한을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계약업체를 보유할 필요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국방부가 다양한 조달 방식 중 경쟁 조달을 가장 선호하지만 군사분야 특성상 영국 획득활동의 약 절반(계약가격 및 규모)이 단일업체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비경쟁 계약

- ❖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국방부 신규 장비계약의 53%(규모면)과 48% (금액면)가 비경쟁으로 이루어졌다.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수치). 2015~2016 회계연도(FY 2015~2016) 중 비경쟁계약을 통한 지출은 영국 NAO이 평가하였다.
- ❖ 2014~2015년 사이에 단일업체 조달관행을 개혁 시도 이전에, 업체들은 단일업체 조달로 10%선의 최고 이익을 허용 받았다(이는 1960년대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수준임).

다. 단일업체 계약규정(Single Source Contract Regulations, SSCR)

- ❖ 2015년에 추진되었던 개혁활동을 통해 작업의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 이익률을 예측하였지만, 2016년 1월에 발표된 SSCR에 따라, 2016년에는 단 1개의 기준 이익률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 첫 번째 비율은 2016년 3월 적용된 8.95%이며, 이는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고, 2015년에 적용된 수준 15%보다 낮았다. 이 비율은 기본비율이며, 위험 성과 인센티브 자본 서비스 비율 등과 같은 문제도 또한 고려되었다. 2017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7) Jane's IHS Markit, Market Report - United Kingdoms

7.46%의 기본비율이 적용되었으며, 2018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는 6.81% 비율, 2019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는 7.63% 비율이 적용되었다. 영국은 단일업체 방산계약에 차등 이익을 또는 폭을 가진 이익률 한계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였으며, 결과를 2016년 8월까지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9년까지 확실한 변화가 없다.

- ❖ 군에 의한 비경쟁 조달 규제를 책임지는 기관은 단일업체 조달보다 정부에 더욱 큰 협상력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된 방산개혁법에 따라 2014년 5월에 설립된 단일업체 규정실(SSRO)이다. 정부는 단일업체 조달이 더 높은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단일업체 규정실에 따라, 추진된 첫 번째 주요 조달사업은 후속 잠수함(드레드노트)과 26형 글로벌 전투함정 사업이었다.
- ❖ 방산개혁법에 명시된 조치에는 500만 GBP 이상 비경쟁 조달사업을 위한 단일업체 가격설정 기본체제, 계약업체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술된 대금지불 및 비용대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단일업체 규정실(SSRO) 설립, 계약업체가 표준보고서를 통해 비용을 공개하는 요구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 FMS)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는 단일업체 조달은 단일업체 계약규정으로부터 특별히 면제된다.
- ❖ 2017년 7월경, 영국 NAO는 통합 조달가격이 239억 GBP인 110건의 계약(계약 95건, 하청 계약 15건)이 SSCR 체제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 영국 NAO는 현재까지 SSCR을 통해 3억 1,300만 GBP를 절약했으며, 향후 첫 10년 동안 이 체제에 따라 17억 GBP를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다.

라. 긴급작전소요 및 긴급능력 소요

- ❖ 현대 영국의 전시 조달 과정, 즉 긴급작전소요(Urgent Operational Requirements, UOR) 체계는 1982년 포클랜드 분쟁 시 처음 선보였다. UOR은 2016년 긴급능력소요(Urgent Capability Requirement, UCR)로 불리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대체되었다.
- ❖ UOR 사업은 보통 소요에서 운용이 되기까지 6~24개월이 걸리는 등 총 사업 기간이 훨씬 짧다. 또한, UOR은 기존 장비예산이 아닌, 재무부에서 추가 편성하는 예산으로부터 조달한다.
- ❖ UOR은 기본적으로 우발 상황을 위한 절차지만, 보통 주요 장비획득계획에 포함하기에 계획시간이 부족하거나 전략적 방향이 맞지 않는 장비를 조달하는데 사용하였다.
- ❖ UCR은 2016년에 도입되었다. UOR과 주요 차이점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장비를 긴급조달 시 재무부 예비자금 대신 국방부 중앙 예비자원으로 조달한다는 점이다.

- ▣ 제인스사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초 사이에 약 500만 파운드가 UCR 절차에 따라 지출되었다.

마. 중소기업

- ▣ 영국 국방부는 2020년까지 모든 조달지출의 25%(직접 및 간접 지출 포함)를 중소기업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회계연도에 지출의 19.4%(38억 파운드)를 중소기업에 집행했다.
- ▣ 국방부는 2015년 SDSR에서 중소기업 및 방산분야에 친숙하지 않은 공급업체들이 방산보안 계약에 더욱 쉽게 입찰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국방부가 중소기업 참여를 장려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가능할 경우 계약을 경쟁으로 추진(하지만, 영국 국방부는 계약의 상당한 비율을 단일업체 계약을 추진하고 있음)
 - 주계약업체와 협력하여 자발적으로 공급망을 공개하고 계약 가능 업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장려
 - 가능한 최소 매출액 기준 제거
- ▣ 2016년 3월, 발표된 추가적인 조치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공급업체가 공고에 충분히 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입찰 제도 개선
 - 가능할 경우, 관료주의적 폐해 감소
 - 간단하면서도 비용이 낮은 소규모 계약용 구매 주문 템플릿 사용 검토

제 2 절 예산 편성 절차

1. 예산 절차

- 영국의 예산 절차는 5단계로 진행되며 아래 표와 같다.

[표 2-1] 영국 예산 절차

단계	담당 기관	명칭	주요 업무
1단계	행정부	예산 편성	재무부에서 정부가 표명한 예산 방향이 적용된 예산 초안 작성
1단계	행정부	예산 편성	담당 관료가 예산 초안을 작성한 후 내각에서 이를 승인
2단계	의회	연간 예산 승인	의회 회의에서 수정사항을 합의한 후 예산 승인
3단계	행정부	예산 이행	행정부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지출을 관리, 의회 제출용 및 행정부 내부용 보고서 작성
4단계	의회	예산 이행 관리	의회 관리는 행정부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 보고서에는 재무 데이터와 비재무 데이터가 모두 포함될 수 있음
5단계	의회	독립적 감사	독립적 외부 감사기관에서 재무 계정에 대한 감사 수행

출처: oecd.org

2. 국방부 연간예산주기

- Y-1년도 지출검토보고서(Spending Review, SR) 결과를 토대로 적정부담 국방예산을 산출하고, 당해 SDR의 정책과 일치하는 미래 국방사업을 식별한다.
- Y년도 연간예산주기(Annual Budget Cycle, ABC) 결과를 토대로 현재 재무 및 국방 역량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미래 국방사업에 대한 진척도를 확인하고, Y+1년도 시작 전 다뤄야할 미결 현황을 식별한다.
- Y+1년도 ABC 절차와 Y년도 능력회계감사(Capability Audit)를 병행하며 Y년도 11월에 심사할 통합 재정 및 능력서를 국방위원회에 제출한다.
- 국방위원회의 권고사항을 Y+1년도 ABC에 적용한다.
- Y년도 ABC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료함으로써 Y+1년도 연간사업목표(Annual Performance Objective) 과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위 주기를 수행하면서 절차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이 면은 공백임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제3장

방위산업 시장

3

제

장

방위산업 시장

제 1 절 국방예산 현황

제 2 절 주요 획득 사업

제 3 절 수입 및 수출시장 역학

이 면은 공백임

제 1 절 국방예산 현황

1. 예산 현황⁸⁾

가. 예산편성 현황

- 영국은 2018년 기준 426억 파운드(584억 달러)를 국방 예산에 편성하며 유럽연합에서 최대 규모 지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GDP의 2.1%에 달하는 수치이다. 2009년 국제 경제 위기가 발발하면서 실시된 긴축정책의 결과로 군사투자 부문이 타격을 입었으나 지출은 차차 안정화되었으며 2010년대의 후반엔 완만한 실질 성장이 전망된다.
- 영국 정부는 2015년 SDSR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10년간 장비조달 및 지원에 1,780억 파운드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영국 정부는 국방 부문 지출을 매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적어도 2019~20년까지 국방 예산을 GDP의 2%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2015년 7월 발표했다.

[표 3-1] 국방 예산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0억 달러	56.864	56.88	57.035	58.360	58.387	58.096	58.377	58.683
10억 파운드	41.511	41.522	41.636	42.603	42.623	42.410	42.615	42.838
GDP (%)	2.16%	2.12%	2.09%	2.12%	2.09%	2.05%	2.02%	1.99%

출처: Jane's Defence Budgets (2018년 불변가격 기준 수치)

8) Jane's IHS Markit, Market Report - United Kingdoms

나. 국방예산 동향

2014년 국방예산 동향

- 영국 국방부 자원 예산이 계획했던 수준보다 1% 줄어든 것이라는 2013년 12월 추계 발표에 따라 추가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 2014년 3월에 발표된 2014년 예산안은 2013년 20억 파운드 자본 미지출분과 2014년 자원 지출 한도에 대한 자원 증액을 포함하였다. 2014년 한 해는 영국군에게 중대한 전환점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투 작전이 종료되었으며 영국 본토에서의 우발상황에 대비한 준비태세 강화로 전환하는 시점이었다.
- 2014년 7월 필립 해먼드(Philip Hammond)가 영국 외무장관으로, 마이클 팰론(Michael Fallon)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할 예정임이 발표되었으며 같은 주 국방 성장 파트너십 (Defence Growth Partnership, DGP) 시행 계획이 공개됐다. DGP는 영국 국방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방 수출 실적 강화를 목표로 한다.

2015년 국방예산 동향

- 연초에는 낙관론이 힘을 얻는 듯했지만 영국의 2015년도 국방 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2015년 6월 영국정부는 해당 연도에 45억 파운드 상당의 지출을 축소하거나 동일 액수만큼의 효용성을 이룬다는 목표하에 일련의 예산 절약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오스본 재무장관은 영국이 적어도 2019-2020년까지 국방 예산을 GDP의 2% 대로 유지하면서 실질 지출액을 매년 증가시킬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2015년 7월 8일선거전 발표됐던 2015년 예산안을 상당부분 수정한 2015년 하계 예산 계획을 발표했다. 하계 예산안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침에 따라 국방예산을 GDP의 2% 선에 맞춰 유지시킬 것을 포함해 국방과 안보 관련한 강경 조치들이 기술되어 있다. 예산안은 또한 매년 1%라는 국방부 장비 계획의 실질적 성장을 보장하고 군 병력 수를 8만 2,000명 규모로 유지하겠다는 결단을 다시금 강조했다.
- 2015년 11월 25일에 발표된 '2015년 지출 심사 및 추계 발표(이하 지출 심사)'는 하계 예산에서 윤곽이 잡혔던 최고 수준 지출 계획을 다시금 강조했다. 지출 심사는 GDP의 2%를 국방 분야에 지출하기 위해 2019-2020년도까지 국방부 예산을 3.1% 실질 증액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따라서 국방부 핵심 예산은 지정 10년 기간의 말까지 343억 파운드에서 396파운드로 증가될 예정이었다. 장비 계획에 대한 120억 파운드 추가 자원, 보잉사 P-8 해상 초계기 9대 구매, 전투비행대대 증설, 새로운 타격 여단 창설 등을 포함하는 야심찬 국방 사업을 공개한 새로운 SDSR이 11월 23일 발표되면서 증가 자원의 발표가 예상됐다.
- 지출 심사는 2016~2020년도에 걸친 정부 부처 지출 계획을 소개하고 있으며, 해당 연도

최초로 영국 경제 진흥을 위한 계획을 업데이트한 추계 발표와 통합됐다. GDP의 2% 지출이라는 약속에서 더 나아가 정부는 매년 국방 예산을 0.5%씩 실제 증액하겠다는 결의를 다시금 밝혔으며 SDSR은 전액 지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이와 같이 지출 심사에서는 2023년부터 퀸엘리자베스급 항모가 F-35B 제트 전투기 24대를 함재기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12억 파운드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수준의 군 병력 유지 및 핵 잠수함 4척 개량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SDSR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공동 안보 펀드에서 출자하는 21억 파운드를 추가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국방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170건 이상의 사업에 투자할 것이며 110억 파운드가 새로운 능력 획득, 혁신 달성, 국방 자산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림 3-1] 퀸엘리자베스급 항모

* 출처 : 영국 국방부

- SDSR 계획의 자금 조달을 위해 다른 부문의 예산을 절감해 92억 파운드를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자원 중 20억 파운드는 병사 및 민간인 '급여 제한'에서, 21억 파운드는 '장비 계획의 상업 요건 개선'을 통해, 그리고 나머지 20억은 현재 자원의 '우선순위 재설정'을 통해 확보한다. 이 외에 요구되는 자원은 민간인 고용인원 축소, 군복무 보너스 종료, 출장비 및 전문가 자문료 축소를 통해 확보한다.
- 이렇게 확보된 자원 중 10억 파운드는 국방부 토지 및 부동산 자산 판매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지출 심사에서는 SDSR에서 소개한 안보 및 정보기관들에 지원하는 자원의 실질적 증액을 포함하는 안보 정책은 공동 안보 펀드에서 출자하는 13억 파운드를 토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보요원을 15% 증원하여 1,900여 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사이버 안보에는 19억 파운드가 투입되며 이 중 일부는 국가 사이버 센터를 설립하는데 쓰인다.

2016년 국방예산 동향

- 격동의 2015년이 지나고 2015년 지출 심사에서 설명한 계획들을 유지하겠다는 결정과는 달리 2016년 3월 16일 발표된 2016년 예산에서는 국방에 대한 언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2017년 국방예산 동향

- 2017년 11월 22일 발표된 2017년 추계 발표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발표 내용을 반영하고자 했고, 따라서 예산 수치는 2017년 춘계 예산에서 발표된 것과 같았으나 2017년 지출 심사에서 설명한 국방 예산이 약간 조정됐다.
- 2017년 3월 발표된 2017년 춘계 예산에서는 국방 지출을 증액하겠다는 앞선 결정이 재확인됐다. 2016년 예산에 나타난 수치와 비교할 때, 보다 많은 액수가 자원 예산에서 자본 지출에 배치될 것이다. 안보관련 사건사고라는 측면에서 국방 지출 증액에 대한 다짐은 2017년 3월 22일 의회에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비록 2017년 춘계 예산에서 나타난 수치와 동일한 수치였지만, 2017년 11월 22일 발표된 2017년 추계 발표에서는 '이전 발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앞선 2017년 지출 심사에서 발표한 국방 예산을 약간 재조정하였다.

2018년 국방예산 동향

- 국방부는 2018년 3월 29일 국방부에 8억 파운드를 '추가'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6억 파운드는 2015년도 SDSR 때부터 국방부 장비 계획에 포함되었던 기존의 핵무기 비상 계획 재원에서 출자한다. 2018년 2월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 파운드가 국방부 예산에 추가 되었으며 이 또한 드레드노트 사업(Dreadnaught programme)에 쓰인다.
- 2018년 10월 29일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은 10억 파운드(2018년 2억, 2019년 8억)를 국방예산에 추가 편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18년 3월 발표한 8억 파운드 증액과는 별개의 증액 건이며 총 추가 예산은 18억 파운드이다.
- 18억 파운드 추가 예산은 사이버 침투력 및 대잠작전능력, 핵 억제력과 같은 핵심 능력의 현대화를 위해 편성되었다. 2018년 3월 증액분 8억 파운드와 2019-2020년도용 추가 8억 파운드는 주로 자본 지출에 쓰였으며, 2018년 잔여기간 증액분 2억 파운드는 인적 자원 및 작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원 계정'에 편성됐다.

다. 항목별 국방 지출

- ❖ **연구 개발 훈련 평가(RDT&E):** 2017년 10월 영국 국방부는 국방 정책과 개발의 토대로서 과학과 기술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2017년 과학기술전략(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y) 보고서는 국방에 과학과 기술에 '새로운 초점'을 뒤야 함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5대 분야의 초점을 소개했다. 이는 물리적 사회적 작전 환경에 일어나는 변화와 신기술의 영향 이해, 빅데이터 및 자율성 기술 활용, 기술적 진보를 통한 군사 능력 개선, 비용 절감, 국방부 내 인적 자원 역량 극대화 등을 포함한다.
- ❖ **혁신 자원:** 2015년도 SDSR에서 영국은 혁신적 국방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2016년 동안 국방 혁신 계획을 설계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8월 국방부의 새 부서인 혁신연구통찰부(Innovation and Research Insights Unit)가 집행할 8억 파운드 재원이 발표됐다. 이는 향후 10년에 걸쳐 쓰이게 된다. 최초의 초점 분야는 레이저 무기, 무인 지상 차량, 가상현실 헤드셋 등을 포함했다. 2016년 12월 영국은 국방 안보 가속 계획(Defence and Security Accelerator Initiative)을 발표했다. 2017년 동안 여러 사업에 자금 지원을 통한 혁신을 유도하고자 300만 파운드가 지원됐다.
- ❖ **인력:** 군 2020 정책의 핵심 요지는 정규군 병력을 8만 2,000명으로 감축하고 예비군을 3만 명으로 확대해 2020년까지 '전체 전력' 11만 2,000명을 달성하는 것이다. 국방부 분석가들은 본 인원 감축 계획을 통해 2011/2012년도와 2021/2022년도 사이에 106억 파운드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표 3-2] 국방 예산(10억 달러, 2018년 불변가격 기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조달	9.295	9.46	9.621	10.262	10.539	10.693	10.775	10.832
RDT&E	2.705	2.862	2.872	2.967	2.971	2.970	2.992	3.007
군인력	20.202	20.145	20.183	20.370	20.085	19.816	19.858	19.961
O&M	21.619	21.344	21.334	21.735	21.768	21.606	21.725	21.839
기타	3.043	3.069	3.025	3.026	3.023	3.011	3.027	3.043

출처: Jane's Defence Budgets

[표 3-3] 국방 장비 계획(10억 파운드)

	장비 계획 2012	장비 계획 2013	장비 계획 2014	장비 계획 2015 (10월)	장비 계획 2016	장비 계획 2017
2012-13	13.247	-	-	-	-	-
2013-14	13.805	13.667	-	-	-	-
2014-15	14.39	14.758	14.511	-	-	-
2015-16	15.542	15.296	14.566	14.88	-	-
2016-17	15.317	15.472	14.381	14.6	14.639	-
2017-18	16.061	15.897	15.434	15.714	15.901	15.255
2018-19	16.741	16.5	15.939	16.277	16.511	16.025
2019-20	17.443	17.348	16.987	17.059	17.34	17.158
2020-21	18.058	17.884	17.283	17.397	18.55	18.361
2021-22	18.811	18.558	17.822	17.996	19.12	18.834
2022-23	-	18.915	17.887	17.582	18.888	18.565
2023-24	-	-	18.074	17.532	19.059	19.054
2024-25	-	-	-	17.314	19	18.794
2025-26	-	-	-	-	18.904	18.660
2026-27	-	-	-	-	-	18.954
합계	159.415	164.295	162.884	166.352	177.912	179.660
출처: UK Ministry of Defence, The Defence Equipment Plan						

2. 예산 지출 전망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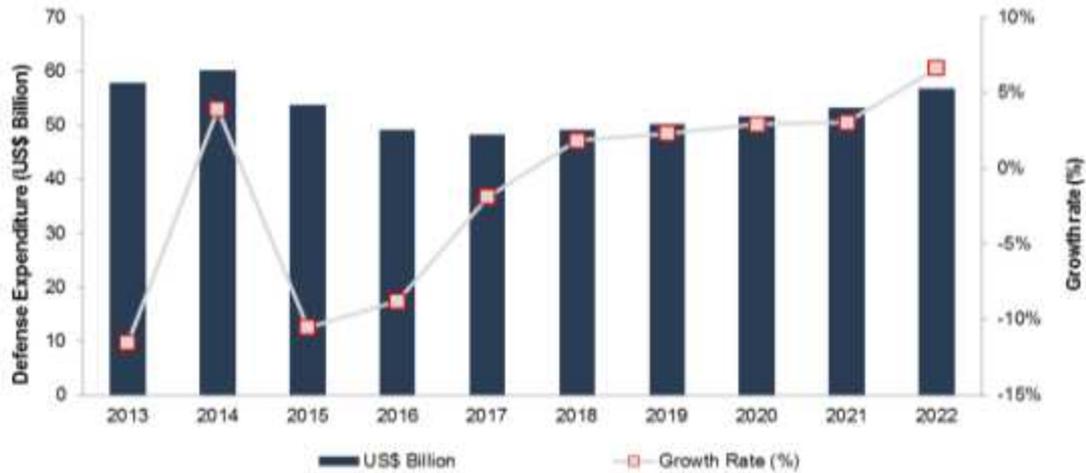
- ▣ 영국의 방위 기능 지출(대외경제원조, 국방 연구·개발, 국방 NEC 제외)은 연평균성장률 3.7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 2022년 영국 국방 지출은 568억 달러가 될 전망이며 해당 기간 동안 누적 지출액은 2,6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영국의 국방 지출은 2013년 579억 달러에서 2017년 482억 달러로 감소하여 연평균성장률 -4.49%를 기록했다. 이러한 국방 예산 감소는 파운드화의 미화 대비 가치 하락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영국의 국방 지출은 연평균성장률 3.71%를 기록하며 누적 지출이 2,6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아래 표에 2013~2022년 영국 국방 지출이 제시되어 있다.

[표 3-4] 국방 지출(10억 파운드, 10억 달러), 2013~2022년

연도	국방 예산(10억 파운드)	성장률(%)	국방 예산(10억 달러)	성장률(%)
2013	37.0	-10.4%	57.9	-11.6%
2014	36.5	-1.4%	60.2	3.9%
2015	35.2	-3.6%	53.8	-10.5%
2016	36.2	2.8%	49.1	-8.8%
2017	37.6	4.0%	48.2	-1.9%
2018	38.3	1.8%	49.1	1.8%
2019	39.3	2.6%	50.2	2.3%
2020	40.4	2.7%	51.7	2.9%
2021	41.6	3.0%	53.2	3.0%
2022	44.4	6.6%	56.8	6.6%
2013~2017	연평균성장률(%), 파운드 기준	0.43%	연평균성장률(%), 달러 기준	-4.49%
2018~2022	연평균성장률(%), 파운드 기준	3.71%	연평균성장률(%), 달러 기준	3.71%

출처: 영국 국방부 및 SDI 분석 ©SDI

- ▣ 아래 그림에 2013~2022년 영국 국방 지출(달러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3-2] 세계 주요 군비 지출국의 국방 지출(10억 달러), 2017년 및 2022년

* 출처 : 영국 국방부 및 SDI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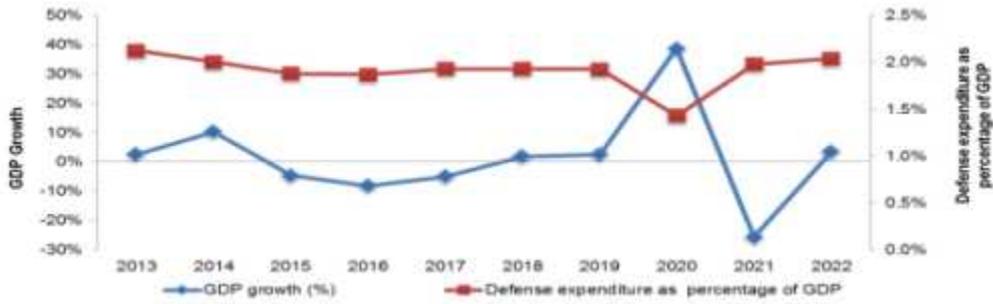
나. GDP대비 지출

- 영국의 GDP 대비 국방 지출 비율은 2013년~2017년 기간동안 평균 2.0%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에는 GDP 성장률이 국방 지출 성장률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GDP 대비 국방 지출 비율이 평균 1.9%로 감소할 전망이다.
- 아래 표와 그림에 2013~2022년 영국의 GDP 대비 국방 지출 비율 동향이 제시되어 있다.

[표 3-5] GDP성장률 및 GDP 대비 국방 지출 비율, 2013~2022년

연도	GDP 성장률(%)	GDP 대비 국방 지출 비율
2013	2.5%	2.13%
2014	10.3%	2.00%
2015	-4.6%	1.88%
2016	-8.2%	1.87%
2017	-5.0%	1.93%
2018	1.9%	1.93%
2019	2.5%	1.92%
2020	38.7%	1.43%
2021	-25.6%	1.98%
2022	3.4%	2.04%

출처: 영국 국방부 및 SDI 분석 ©SDI



[그림 3-3] GDP 성장률 대 국방 지출 성장률, GDP 대비 국방 지출 비율, 2013~2022년

* 출처 : 영국 국방부 및 SDI 분석

다. 방위력 개선

- 영국 국방 예산은 방위력 개선, 평화유지 작전 지출, 대외원조로 구성되는데 보통 방위력 개선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방위력 개선 지출에는 육군·해군·공군에 대한 장비 제공, 운용 지원, 군수 서비스를 위한 비용이 포함된다. 해당 기간 중 방위력 개선 지출이 영국 전체 국방 예산 중 평균 96.1%를 차지했으며, 평화유지 작전 지출과 대외원조가 나머지를 차지했다. 대외군사원조가 감소함에 따라, 현재 연도부터 방위력 개선 지출이 약간 늘어나고 2018년 이후 동안 동일한 동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력 개선에 대한 배정 비율은 2018~2022년 평균 96.9%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평화유지 지출 및 대외원조에 대한 배정 비율은 각각 평균 0.5%, 2.6%에 머무를 전망이다.
- 아래 표와 그림에 2013~2022년 영국 국방 예산 내역이 제시되어 있다.

[표 3-6] 국방 예산 내역(%), 2013~2022년

연도	방위력 개선(%)	평화유지(%)	대외군사원조(%)
2013	93.2%	0.8%	5.9%
2014	95.3%	0.8%	3.8%
2015	98.0%	0.3%	1.7%
2016	98.1%	1.1%	0.8%
2017	95.6%	0.3%	4.1%
2018	96.3%	0.6%	3.2%
2019	96.9%	0.5%	2.6%
2020	97.1%	0.6%	2.3%
2021	97.1%	0.5%	2.4%
2022	97.0%	0.5%	2.6%

출처: 영국 국방부 및 SDI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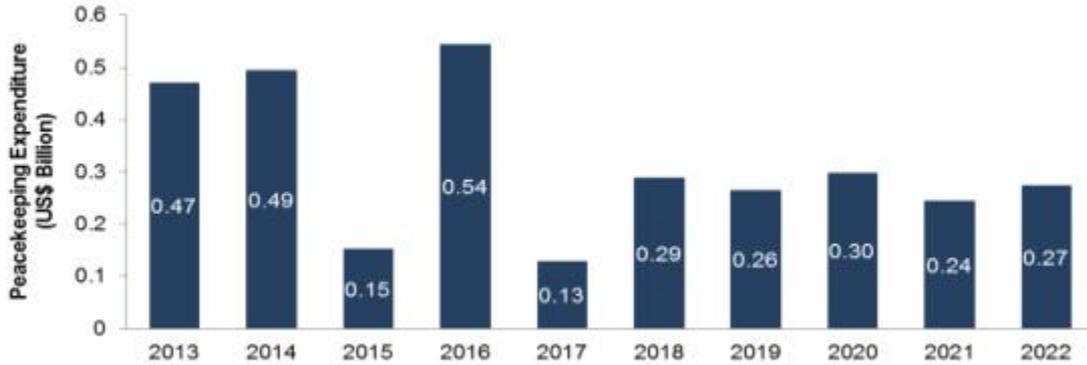
[그림 3-4] 국방 지출 배정 항목별 내역(%), 2013~2022년

* 출처 : 영국 국방부 및 SDI 분석

라. 평화유지 작전 / 대외군사원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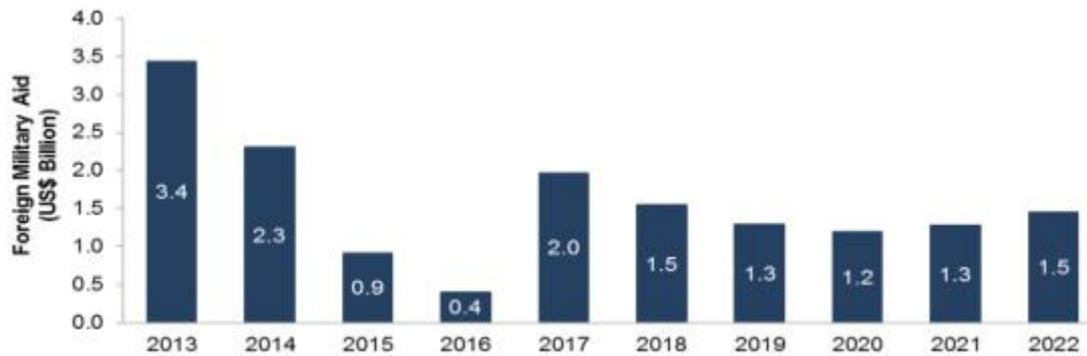
- ▶ 평화유지 작전 배정액은 2018년 이후에도 꾸준히 유지될 전망이지만 대외군사원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 영국 정부는 세계 전역의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는 평화유지 임무에 참여하고 있다. 영국은 오래 전부터 평화유지 임무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평화유지를 위한 지출 측면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평화유지 지출은 이후에도 해당 기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 영국군은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는 상당수의 평화유지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영국은 2017년 7월 기준 UN 평화유지 임무 기여 순위 6위로서 전체 기여의 5.80%를 차지한다. 영국은 UN 키프로스 평화유지군, UN 콩고민주공화국 안정화임무단, UN 수단 임무단, UN 말리 안정화임무단의 평화유지 작전을 위해 병력을 배치했다. 영국 정부는 또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및 조지아 내 EU 평화유지 작전도 지원했다. 영국은 그 외에도 아프가니스탄에 9,500명의 병력을 배치하여 2014년부터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군사 지원을 제공해 왔다. 다양한 평화유지 작전을 위한 지출이 2018년 이후 영국의 국방 예산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영국은 이슬람 반군 진압을 위해 소말리아에 병력을 파견하고 평화유지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아래 표와 그림에 2013~2022년 평화유지 활동 및 대외군사원조에 배정된 국방 예산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3-5] 평화유지 활동 예산(10억 달러), 2013~2022년

* 출처 : 영국 국방부 및 SDI 분석



[그림 3-6] 대외군사원조 예산(10억 달러), 2013~2022년

* 출처 : 영국 국방부 및 SDI 분석

마. 각군별 지출

- 육군에 대한 지출이 2018년~2022년 동안 평균 31.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은 해군과 공군에 대한 지출로, 각각 평균 25.5% 및 22.3%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리·유지 보수, 국방 장비, 지원 등의 공통 서비스는 같은 기간 평균 20.5%를 차지할 전망이다. 그

외에, 영국 국방부는 군이 직면한 난관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솔루션 조달 계획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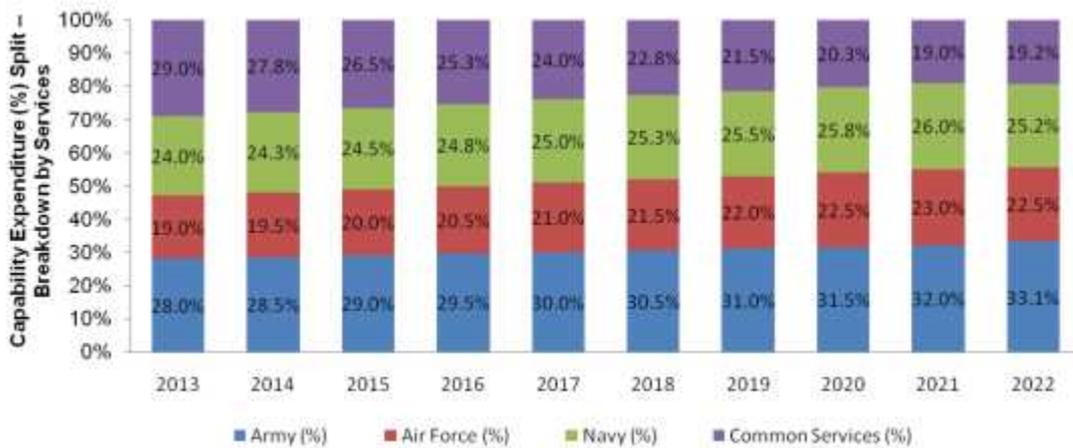
아래 표에 2013~2022년 방위 능력 예산 지출 내역이 제시되어 있다.

[표 3-7] 영국 방위 능력 지출 내역(%), 2013~2022년

연도	육군(%)	공군(%)	해군(%)	공통 서비스(%)
2013	28.0%	19.0%	24.0%	29.0%
2014	28.5%	19.5%	24.3%	27.8%
2015	29.0%	20.0%	24.5%	26.5%
2016	29.5%	20.5%	24.8%	25.3%
2017	30.0%	21.0%	25.0%	24.0%
2018	30.5%	21.5%	25.3%	22.8%
2019	31.0%	22.0%	25.5%	21.5%
2020	31.5%	22.5%	25.8%	20.3%
2021	32.0%	23.0%	26.0%	19.0%
2022	33.1%	22.5%	25.2%	19.2%

출처: 영국 국방부 및 SDI 분석 ©SDI

아래 그림에 2013~2022년 방위력 개선 예산 지출 내역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3-7] 방위력 개선 지출 배정 내역(%), 2013~2022년

* 출처 : 영국 국방부 및 SDI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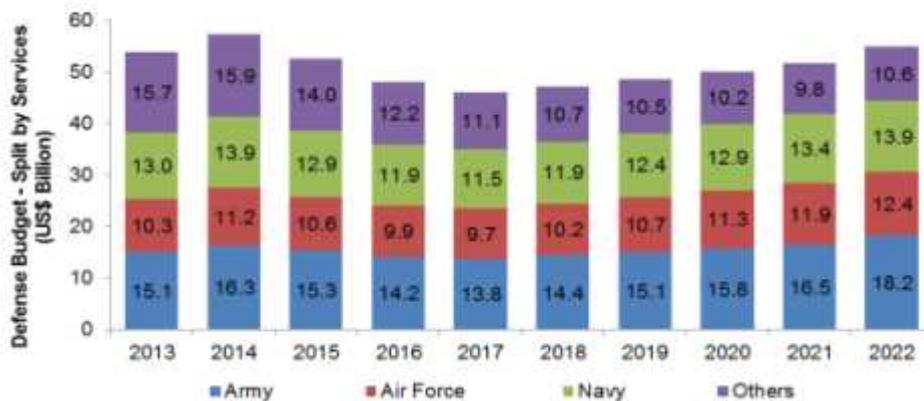
해당 기간 동안, 영국 정부는 육군에 509억 파운드, 공군에 351억 파운드, 해군에 430억 파운드를 누적 배정했다. 2018년~2022년 영국의 육군, 공군, 해군에 대한 누적 배정액은 각각 626억 파운드, 441억 파운드, 505억 파운드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래 표와 그림에 2013~2022년 각 군별(육군, 공군, 해군, 기타) 국방 예산 배정 내역(파운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표 3-8] 국방 예산(10억 달러) - 각 군별(육군, 공군, 해군, 기타) 내역, 2013~2022년

연도	육군 (10억달러)	육군 성장률 (%)	공군 (10억달러)	공군 성장률 (%)	해군 (10억달러)	해군 성장률 (%)	기타 (10억달러)	기타 성장률 (%)
2013	15.1	-9.7%	10.3	-9.7%	13.0	-9.7%	15.7	-9.7%
2014	16.3	8.1%	11.2	9.0%	13.9	7.3%	15.9	1.7%
2015	15.3	-6.4%	10.6	-5.7%	12.9	-7.1%	14.0	-12.2%
2016	14.2	-7.2%	9.9	-6.4%	11.9	-7.8%	12.2	-13.0%
2017	13.8	-2.7%	9.7	-2.0%	11.5	-3.3%	11.1	-9.0%
2018	14.4	4.2%	10.2	4.9%	11.9	3.5%	10.7	-2.8%
2019	15.1	4.7%	10.7	5.4%	12.4	4.0%	10.5	-2.7%
2020	15.8	4.8%	11.3	5.5%	12.9	4.2%	10.2	-2.8%
2021	16.5	4.7%	11.9	5.4%	13.4	4.1%	9.8	-3.3%
2022	18.2	10.1%	12.4	4.1%	13.9	3.2%	10.6	7.6%
2013~ 2017	연평균성 장률(%), 달러기준	-2.21%	연평균성 장률(%), 달러기준	-1.44%	연평균성 장률(%), 달러기준	-2.89%	연평균성 장률(%), 달러기준	-8.32%
2018~ 2022	연평균성 장률(%), 달러기준	6.05%	연평균성 장률(%), 달러기준	5.09%	연평균성 장률(%), 달러기준	3.85%	연평균성 장률(%), 달러기준	-0.42%

출처: 영국 국방부 및 SDI 분석



[그림 3-8] 국방 예산(10억 달러) - 각 군별(육군, 공군, 해군, 기타) 내역, 2013~2022년

* 출처 : 영국 국방부 및 SDI 분석

바. 국토안보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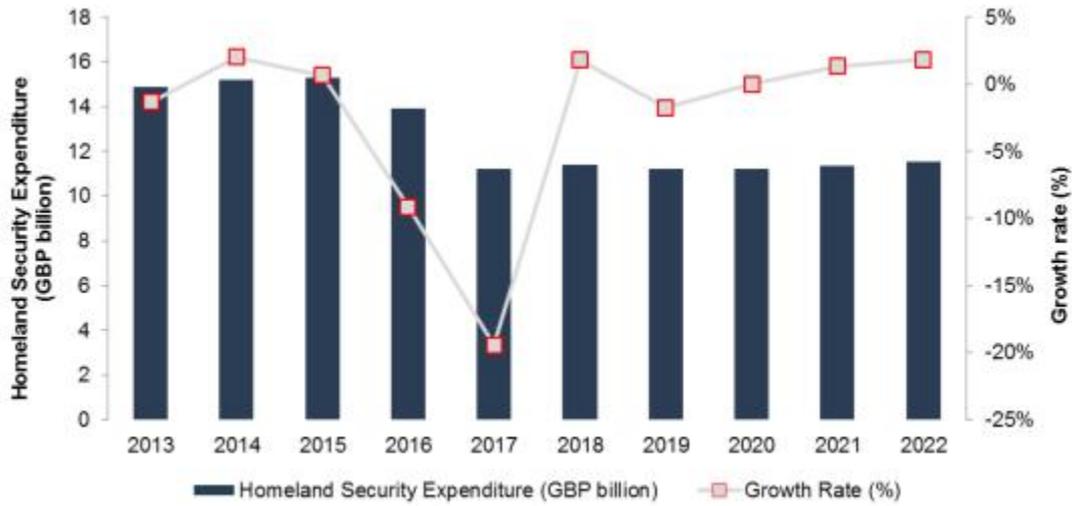
- ❖ 영국 국토안보 시장은 2018년~2022년 연평균성장률 0.3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기간 동안 567억 파운드를 누적 지출할 전망이다.
- ❖ 영국의 국토안보는 치안 서비스, 소방 서비스, 법원, 교도소, 기타로 구성된다. 국토안보 예산은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성장률 -6.89%를 기록했다. 2018년~2022년 동안은 영국의 누적 지출이 567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미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국토안보 예산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성장률 0.3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영국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국토안보 예산을 줄였다. 국방 예산 감축과 자원 최적화가 국토안보에 대한 예산 배정액 감소를 야기한 주된 요인이었다. 하지만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는 동시에 테러, 사이버 보안, 범죄에 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향후 영국의 국토안보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특히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방폭 유리, 침입 경보기, 출입 관리실, 컴퓨터 보안 등의 정보 활동 및 기술에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국토안보에 726억 달러를 누적 지출하여 연평균성장률 0.35%를 기록할 전망이다.
- ❖ 아래 표에 2013~2022년 영국 국토안보 지출이 제시되어 있다.

[표 3-9] 국토안보 지출(10억 파운드, 10억 달러), 2013~2022년

연도	국토안보 지출(10억 파운드)	성장률(%)	국토안보 지출(10억 달러)	성장률(%)
2013	14.9	-1.3%	24.7	3.1%
2014	15.2	2.0%	23.5	-4.8%
2015	15.3	0.7%	21.8	-7.2%
2016	13.9	-9.2%	17.6	-19.2%
2017	11.2	-19.4%	14.8	-15.9%
2018	11.4	1.8%	15.1	1.8%
2019	11.2	-1.8%	14.8	-1.8%
2020	11.2	0.0%	14.8	0.0%
2021	11.4	1.3%	15.0	1.3%
2022	11.6	1.9%	15.3	1.9%
2013~2017	연평균성장률(%), 파운드 기준	-6.89%	연평균성장률(%), 달러 기준	-11.98%
2018~2022	연평균성장률(%), 파운드 기준	0.35%	연평균성장률(%), 달러 기준	0.35%

출처: 영국 국방부 및 SDI 분석 ©S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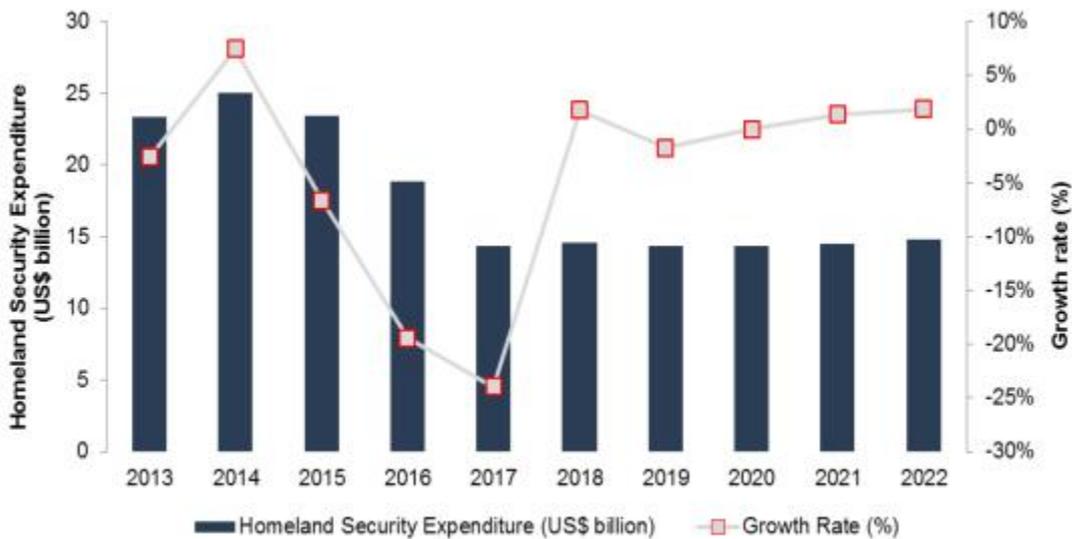
- ❖ 아래 그림에 2013~2022년 영국 국토안보 지출(파운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3-9] 국토안보 지출(10억 파운드), 2013~2022년

* 출처 : 영국 국방부 및 SDI 분석

아래 그림에 2013~2022년 영국 국토안보 지출(달러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0] 국토안보 지출(10억 달러), 2013~2022년

* 출처 : 영국 국방부 및 SDI 분석

제 2 절 주요 획득 사업

1. 육군

가. 기계화보병차량(MIV)

- ❖ MIV 사업은 영국 육군이 추진하는 중요한 조달사업 중 하나로서 기성품 조달을 통해 8x8 차량을 획득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 국방부는 2003년 철수한바 있는, 다국적 장갑차량 복서(Boxer) 사업을 다시 공식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2018년 4월에 발표했다. 복서 사업은 독일 KMW(Krauss-Maffei Wegmann)사와 라인메탈사의 합작투자업체인 아르텍(Artec)사가 주도하고 있다.
- ❖ 영국 복서 차량 제작은 영국에서 이루어지며, BAE Systems사, 피어슨(Pearson)사, 탈레스 UK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서 차량 사업에 재개하는 결정은 경쟁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 복서 차량은 2023년부터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2개의 신규 타격여단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 타격여단에는 아약스(Ajax) 궤도형 정찰차량도 배치될 예정이다. 영국은 4가지 형태의 복서 차량 400~600대와 조종수 훈련용 차량을 조달할 예정이다.



[그림 3-11] 다국적 장갑차량 복서(Boxer)

* 출처 : 영국 정부(Crown Copyright)

나. 챌린저 2 전차 수명연장사업

- ▶ 챌린저 2 전차 수명연장사업은 챌린저 2 주력전차 227대를 2035년까지 유지하기 위해, 표준 체계를 포함한 전차의 전자장치 대부분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범위에 전차 구동체계에 대한 성능개량 또는 전차의 120 mm L30A1 강선식 주포 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단계에서 2개 팀으로 압축 선정하는 과정은 2016년 12월에 이루어졌으며 BAE Systems사 (General Dynamics Land Systems UK사와 제휴)와 라인메탈 랜드 시스템스사가 선정되었다. 24개월간의 평가단계가 2018년말에 종료되었다.

다. STRIKE 155 자주곡사포(SPH)

- ▶ 영국 육군의 자주포병 자산은 노후화된 AS90 155 mm 자주곡사포 및 M270 MLRS체계에 제한되어 있으며, 이들 두 체계 모두 육군이 계획하고 있는 미래 부대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육군은 새로운 155 mm 차륜형 자주곡사포 조달을 포함하여 기존 능력을 개선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다. 육군이 2025년 이전에 중형 차륜형 화포를 운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2016년 말에 이름과 설명을 밝힌 이외에 요구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여전히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2. 해군

가. 타입 31 일반목적 호위함

- ▶ 영국 해군이 당시 운용 중이던 타입 23 호위함을 13척을 타입 26 호위함으로 교체하는 일명 글로벌 전투함 사업은 2010년 SDSR에 처음 나타났다. 이러한 계획은 2015년 SDSR에 의해 변경되었다. 타입26 함정 획득을 13척에서 8척으로 감소하고 나머지 5척은 값싸며, 잠재적으로 수출가능성이 더 높은 타입 31 일반목적호위함을 획득 하는 것이다. 영국은 2017년 9월 국가함정건조전략을 채택하면서 타입31 함정 5척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 ▶ 타입 31 호위함의 시장시험을 위한 공식적인 정보요청서가 2017년 9월 11일 발표되었다. BAE Systems사와 카멜 레어드(Cammell Laird) 조선소가 합작하여 입찰하였고, 밥콕 (Babcock)사는 탈레스사, BMT사, 할랜드 앤 울프(Harland & Wolff)사, 퍼거슨 마린 (Ferguson Marine)사와 합작하여 입찰하였다. 이 함정은 1척당 2억 5,000만 파운드의 고정

가격으로 획득되며, 생산을 영국에서 하고, 영국 조선소간에 작업을 분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18년 7월, 입찰안이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획득과정이 종료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다. 2018년 12월,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3개 업체팀이 입찰했으며, 이들은 아틀라스 일렉트로닉(Atlas Elektronik) UK사, 밥콕사, BAE Systems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각각 500만 파운드 규모의 7개월간 진행되는 설계·건조전략 계약을 수주하였다. 각 입찰업체는 단일 설계·건조계약을 위해 협상하도록 초청되었으며, 계약은 2019년말 또는 2020년 초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나. 연안초계함정(River급 2차분)

- 리버(River)급 2차분 사업에 따라, 헬기 탑재가능 연안초계함정(OPV) 3척(이후 5척) 조달이 추진되었다. 함정 3척이 BAE Systems사의 고반(Govan) 및 스코츠타운(Scotstoun)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으며, 이들은 항공모함과 차세대 타입26 호위함 건조 간의 작업 공백을 메울 예정이다. 연안초계함정은 항해거리 5,000해리, 최대속도 24kt를 이용하여 전세계에 배치되어 해양 초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함정은 2003년에 취역한 리버급 함정 1차분 3척(HMS Tyne, Severn, and Mersey)을 대체할 예정이다.
- 2차분 함정에 대한 건조작업이 2014년 10월에 시작되었다. 첫 번째 함정 HMS 포스(Forth) 함 건조작업이 2014년말에 시작되었으며, 2017년 3월에 함정 명명이 되었다. 이 함정은 2018년 1월, 영국 해군에 인계되었다. HMS 트렌트(Trent)함에 대한 건조작업이 2015년 10월에 시작되었으며, 2016년 9월에 진수되었다. HMS 메드웨이(Medway)함에 대한 강철 절단작업이 2015년 10월에 시작되었다. 연안초계함정 2척을 추가 구매하는 계획이 2015년 SDSR에 포함되었으며, 리버급 2차분 사업에 따라, 함정 2척(HMS Tamarand함 및 HMS Spey함) 건조를 위한 2억 8,700만 파운드 규모의 조달계약이 2016년 12월 발표되었다. HMS 스페이(Spey)함 및 HMS 타마르(Tamar)함을 위한 강철 절단작업이 2017년 4월과 2018년 10월에 각각 시작되었다. 함정 5척 전체가 2021년까지 납품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애스튜트(Astute)급 잠수함

- 영국은 신형 애스튜트급 공격잠수함 1차분 3척 건조를 위해 약 19억 파운드(29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BAE 시스템사와 체결했다. 설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지연된 후, 이 사업은 12월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동급 첫 번째 함정인 HMS 애스튜트(Astute)함이 2008년 8월에 납품되고, 2008년 11월에 운용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으나, 다시 생긴 수리 및 원자로 연료 문제와 관련하여 지연이 발생했다. 함정 취역은 2010년 8월에 마침내 이루어졌으며, 2013년에 작전운용을 시작했다.

- 두 번째 함정인 앰부쉬(Ambush) 함이 2013년 취역하였으며, 세 번째 함정 HMS 아트풀(Artful)함이 2015년 8월 13일, 건조업체 해상시험을 시작하고, 2015년 12월 16일에 영국 해군에 인계되었다. 네 번째 함정인 오데이셔스(Audacious)함이 2009년 3월에 기공식을 거행하고, 2016년 12월에 공식적으로 명명되었으며, 2017년 4월에 진수되었다. 다섯 번째 함정인 앤슨(Anson)함이 2011년 10월에 기공식을 하고, 2020년에 운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섯 번째 함정인 아가멤논(Agamemnon)함이 2022년에 운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가멤논함 납품을 위한 14억 파운드 규모의 계약이 2017년 3월 31일 발주되었다. 일곱 번째 마지막 함정인 미래 애그니코트(Agincourt)함에 대한 15억 파운드 규모의 계약이 2018년 5월에 발주되었다.

3. 공군

가. Tempest 미래 전투기사업

- 2018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영국 개빈 윌리엄슨 국방장관이 템페스트(Tempest) 전투기로 불리는 차세대 전투기 개념모형을 공개했다. 당시 템페스트 사업팀은 BAE Systems사, 레오나르도사, MBDA사, 롤스-로이스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영국 국방부는 2025년 최종 투자결정을 하기에 앞서 2018년 잔여기간 동안 템페스트 사업을 검토하였다. 템페스트 전투기는 2035년에 첫 비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며, 국제협력을 추구하고 있었다.

나. F-35 합동타격전투기

- 영국은 FA.2 시 해리어(Sea Harrier) 및 GR.9 해리어 전투기 대체기종으로서 록히드마틴사의 F-35B 라이트닝 II 단거리이륙 수직착륙(STOVL) 전투기 조달을 추진하였다. 이 전투기는 영국 해군의 합동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이었다. 이 전투기의 원래 계획된 구매량은 150대였으나, 2010년부터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그 이후 전투기 60~70대가 획득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 영국은 2010년 전략방위안보검토서(SDSR)에서 그 대신, 항공모함 탑재형 F-35C 전투

기를 선정하였으나, 2013년에 이 결정을 뒤집고, F-35B 전투기로 되돌아갔다.

- ▶ 그 이후, 영국은 록히드마틴사의 F-35B 라이트닝 II 합동타격전투기 138대를 완전 추진등재사업으로 획득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국방부는 2017년 2월 14일 F-35B 전투기에 대한 최초 비행허가를 승인하고 조종사 훈련을 허용했다. 영국 국방부는 F-35 전투기 최초 조달분량 48대를 F-35B형으로 하는 한편, 분리 구매하는 잔여 전투기에 덜 비싼 재래식 이착륙(CTOL) F-35A형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공군의 첫 번째 F-35 전투기 4대가 2018년 6월 영국에 도착했으며, 2018년 8월에 추가로 5대가 도착하였다. 영국은 2018년 10월까지 전투기 총 16대를 인수하였다.

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 ▶ 영국은 토네이도 F.Mk 3 및 재규어 GR.Mk 3A 전투기를 대체하고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다목적 전투기 232대를 3차에 걸쳐 조달하고 있다. 1차분 및 2차분 사업에 따라 영국은 단좌형 120대 및 복좌형 24대를 조달하기로 결정하고, 납품이 2005~10년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1차분 전투기가 2005년 4월에 납품되기 시작하였다. 2차분 전투기는 2004년 말에 주문되었으며, 2008년에 납품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이들 전투기 중 24대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전환됨으로써, 영국 공군이 최초 사업단계에서 조달하는 전투기 숫자는 120대로 줄어들었다.
- ▶ 2007년과 2010년 사이 자금지원 제한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당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던 3회분 잔여 전투기 88대의 미래가 불투명 해졌으며, 전투기 40대로 구성된 잠정 구매안에 합의하였다. 영국은 2016년 5월에 3회분 전투기를 인수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 말에 3회분 전투기 26대가 납품되었으며, 14대가 남아 있음으로써 영국 공군에 납품된 유로파이터 전투기의 총 숫자가 146대가 되었다고 보도되었다. 2015년 SDSR에서 영국 공군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의 운용수명을 2030년에서 2040년으로 연장하고, 신규 2개 공군전대에 장비하기 위해 2018년까지 퇴역하기로 되어 있었던 1회분 전투기 24대를 유지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들 항공기는 지상공격능력 및 신형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Radar)를 포함하여 성능개량을 하도록 되어있었다.

라. 미래 전략 재급유기(FSTA) 사업

- ▶ 영국은 미래 전략 재급유기(FSTA) 사업을 통해 원정작전을 지원하고, VC10 및 트리스타(Tristar) 수송기를 대체하기 위해 에어버스사의 A330-200 보이저(Voyager) 전략 다목적 재급유기-수송기 14대 조달을 추진하였다. 납품은 2016년 초에 완료되었으며, 최종 항공기

가 2016년 4월에 납품되었고, 완전운용능력은 2016년 10월에 달성되었다. 이 조달사업은 민간금융계획(PFI) 협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들 항공기 중 1대가 정부 및 왕실 귀빈 수송을 위해 귀빈용 구조로 전환되었다.

마. 미래 Lynx 헬기 - 수상전투함용 해양 회전익 항공기

미래 회전익 능력(FRC) 사업의 해양 수상공격 부문 사업에 따라, 영국 해군의 링스(Lynx) HMA.3/8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미래 링스 헬기 28대 조달이 추진되었다. 기존 군용 헬기 지원과 미래 소요 지원 둘 모두를 위해 2006년 6월 22일 영국 국방부와 오거스타웨스트랜드(AgustaWestland)사(Leonardo Helicopters) 사이에 전략적 제휴관계가 체결되었다. 2007년에 미래 링스 헬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발표되지 않고 있다가, 2009년 4월 24일에, 국방부가 링스 와일드캣(Lynx Wildcat) 헬기로 명칭을 공식적으로 변경하고, 동시에 제작업체가 AW159 헬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문한 AW159 와일드캣 HMA.1 헬기 28대 중 마지막 헬기가 2016년 10월경 영국 해군 항공대에 납품됨으로써 이 사업이 완료되었다.

바. 미래 Lynx 헬기 - 전장정찰헬기

미래 회전익 능력(FRC)사업의 지상부문 사업에 따라, 영국 육군항공단이 현재 운용 중인 링스 AH.7/9 헬기 재고품을 대체하기 위해, 미래 링스 헬기 34대(5개 옵션이 있음) 조달사업이 추진되었다. 기존 군용헬기 지원과 미래 소요 지원 둘 모두를 위해 영국 국방부와 오거스타웨스트랜드사 간에 전략적 제휴관계가 2006년 6월 22일 체결되었다. 미래 링스 헬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발표되지 않고 있다가, 2009년 4월 24일에, 국방부가 링스 와 링스 와일드캣 헬기로 명칭을 공식적으로 변경하고, 동시에 제작업체가 AW159 헬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형태 헬기는 2014년 육군항공단에서 운용을 시작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2016년 7월경, 육군항공단용으로 주문한 오거스타웨스트랜드사의 AW159 와일드캣 AH.1 헬기 34대 전체가 납품 완료되었다.

사. 아파치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

미 국무부는 2015년 8월 영국이 요청한 30억 달러 패키지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UK WAH-64 Mk 1 헬기 50대를 AH-64E 표준으로 다시 제작하게 되어 있었다. 이 패키지에는

T-700-GE-701D 엔진 110대(설치 100대, 예비 10대), AN/ASQ-170 현대화한 표적획득? 지시조준경(M-TADS) 53대 재정비(설치 50대, 예비 3대), 레이더 전자장치(롱보우 구성품) 55대(설치 50대, 예비 5대)와 함께 AN/APG-78 사격통제 레이더(FCR) 52대 재정비(설치 50대, 예비 2대), AN/APR-48B 현대화한 레이더 주파수 간섭계 52대(설치 50대, 예비 2대), 5번째 센서 및 개량형 대응책 처리장치를 구비한 AAR-57(V) 3/5 공통미사일경고체계(CMWS) 60대(설치 50대, 예비 10대), 관성항법체계를 구비한 내장형 GPS체계 120대(설치 100대, 예비 20대), 아파치 조종사용 통합 헬멧 300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영국 국방부는 2016년 이 조달사업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구매사업은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첫 번째 헬기가 2020년까지 생산되어 2022년에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성품 조달로 설명되었다.

아. 해양초계기/다중임무 항공기, 정보·감시·표적획득·정찰용(MMA ISTAR)

- 2010년 전략방위안보검토서에서 BAE Systems사가 주도하는 Nimrod MRA4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영국 해양초계 능력에 공백이 야기되었다. 이 사업은 심각한 비용 초과 및 일정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영국내 기반으로는 능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즉각적인 노력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이 2015년 전략방위안보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기되었다. 영국은 2015년 전략방위안보검토서에서 보잉사의 P-8 포세이돈(Poseidon) 항공기 9대를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이들 항공기가 스코틀랜드에 소재한 영국 공군의 로시머스(Lossiemouth)기지에 배치되어 해양 감시, 대잠전, 대수상함전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영국의 핵억제력과 신규 항공모함에 대한 방호력을 더욱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영국 국방부는 2016년 7월에 조달계약 체결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미국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해 추진되었다. 보잉사는 첫 번째 영국 P-8A 항공기에 대한 계약 수주를 2017년 4월에 발표하였으며, 항공기 9대 중 첫 번째 3대가 2019년에 납품될 예정이고, 잔여 항공기는 2022년까지 납품될 예정이다. 2018년 현재, 군사형식 인증은 2019년 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이 또한 지상 상공감시 역할로 사용 중인 Raytheon사 제작 센티넬(Sentinel) R1 공중 원격 레이더(ASTOR) 항공기를 대체하기 위해 P-8A 항공기를 검토하고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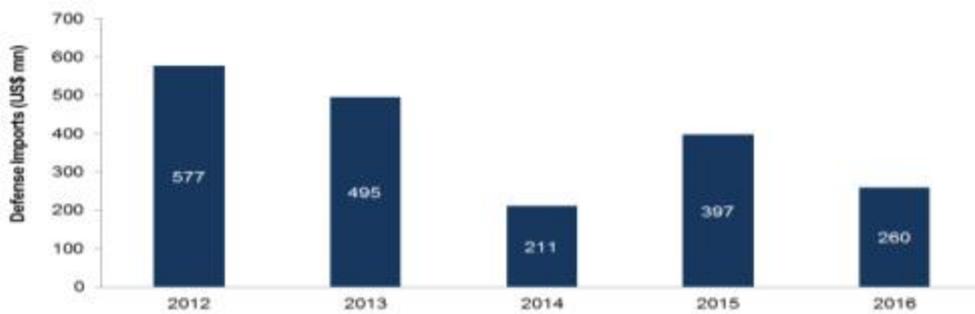
9) Jane's IHS Markit, Market Report - United Kingdoms

제 3 절 수입 및 수출시장 역학

1. 수입시장 역학

가. 수입시장 동향

- 영국의 방산 수입은 2012~2016년 연평균성장률 -18.07%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다. 향후 몇 년간은 영국은 신규 조달 사업 및 국토안보 현대화 수행을 위해 국방 예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국은 국내 생산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국방 조달 예산 중 많은 부분이 국내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내 조달에 중점을 두는 것은 줄어든 예산 안에서 필요한 군 현대화 조치를 시행하려는 노력 때문이다. 그에 따라 2017년 이후 방산 수입은 해당 기간과 대체로 같은 동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2] 방산 수입, 2012~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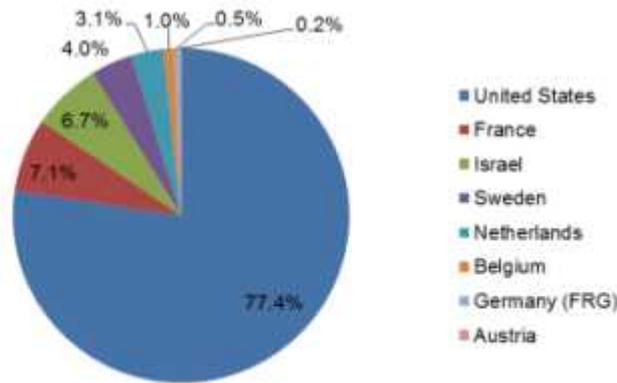
* 출처 : SIPRI 및 SDI 분석

나. 주요 수입 국가

- 미국이 영국에 대한 주된 무기 수출국이며 앞으로도 그러한 동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국방 장비의 77.4% 이상을 미국에서 수입한다.
- NATO가 수입 및 수출 정책의 기반 역할을 한다. 프랑스가 2009~2013년 꾸준한 수출 증가

를 통해 영국 방산시장에 침투했다. 2017년 이후에도 영국의 방산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프랑스 역시 영국의 방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천천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와 영국은 2015년 11월에 방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아래 그림에 2012~2016년 영국의 무기 수입 동향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3] 국가별 방산수입(%), 2012~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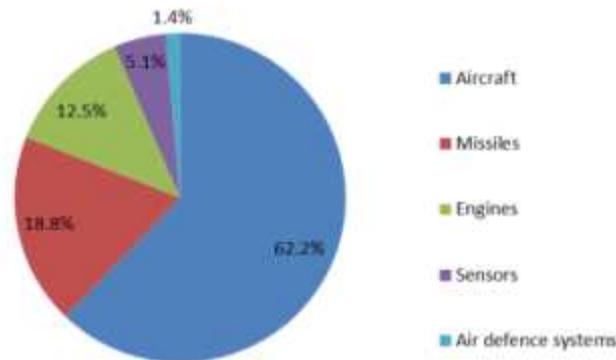
* 출처 : SIPRI 및 SDI 분석

다. 주요 수입 품목

- ▶ 항공기, 미사일, 엔진이 영국 무기 수입의 3/4 이상을 차지한다.
- ▶ 영국 정부는 수입 지출의 62.2%를 항공기 관련 지출에 사용하였으며, 미사일 18.8%, 방공체계 12.5%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정부가 향후 10년간 국방 장비 및 지원에 2,510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F-35B 항공기, 보이저 공중급유기, A400M 수송기 등을 조달할 계획이다.
- ▶ 앞으로 항공기와 잠수함, 헬기가 영국의 국방 장비 수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2015년 전략국방안보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그 외에도 유로파이터사 타이푼 추가 2대, 보잉사 P-8 포세이돈 해양초계기 9대, C-130J 허큘리스 항공기 14대를 조달할 계획이다.

아래 그림에 2012~2016년 영국의 범주별 방산 수입 내역이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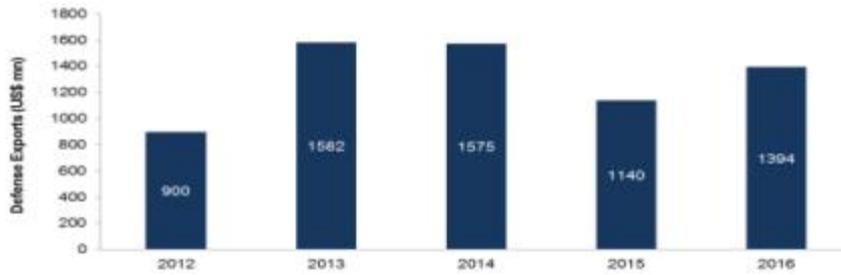
[그림 3-14] 범주별 방산수입(%), 2012~2016년

* 출처 : SIPRI 및 SDI 분석

2. 수출시장 역학

가. 수출시장 동향

- 영국의 방산 수출은 연평균성장률 11.6% 기록하였다. 그만큼, 영국 방산업계는 입증된 능력을 갖춘 다양한 세계 정상급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 영국은 세계적 기업 10여 개의 모국이다. 또한 영국에 기반을 둔 많은 기업이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방산 부문의 높은 역량이 향후 수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2015년에는 전체적으로 수출 감소를 겪었는데, 이는 수출 시장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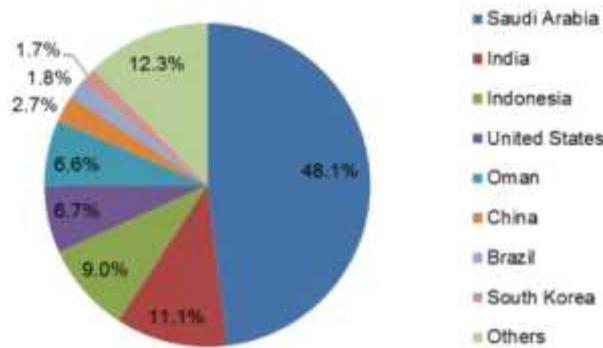


[그림 3-15] 방산 수출, 2012~2016년

* 출처 : SIPRI 및 SDI 분석

나. 주요 수출 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인도네시아가 주요 구매자이다. 인도와의 방산 거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인도가 최근 몇 건의 거래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도는 2014년에 7억 7,700만 달러 규모의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 헬기 거래를 취소했으며 이것이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인도네시아는 영국 국방 장비 주요 구매자의 위치를 꾸준히 유지해 왔으며, 합산 시 영국 방산 수출의 68.2%를 차지한다
- 아래 그림에 2012~2016년 영국의 무기 수출 동향이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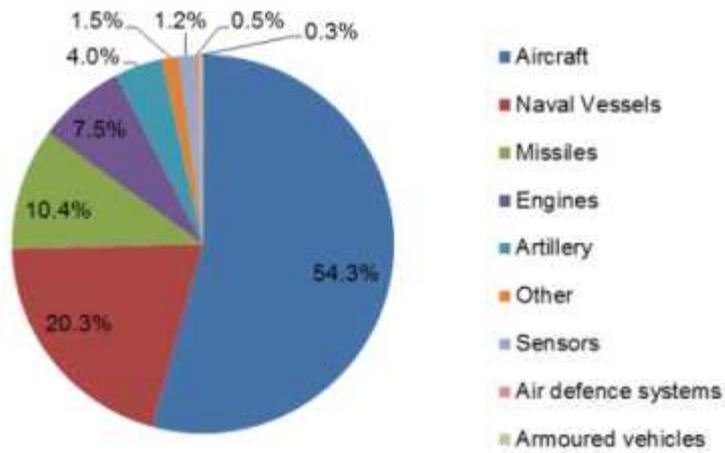


[그림 3-16] 국가별 방산 수출(%), 2012~2016년

* 출처 : SIPRI 및 SDI 분석

다. 주요 수출 품목

- ▶ 항공기, 함정, 미사일이 2012~2016년 영국 무기 수출의 85%를 차지했다. 향후 미국에 대한 포 및 미사일 판매가 계속되고 사우디의 무기 조달이 늘어나면서 영국의 방산 수출이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 ▶ 아래 그림에 2012~2016년 영국의 범주별 방산 수출 내역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7] 범주별 방산수출(%), 2012~2016년

* 출처 : SIPRI 및 SDI 분석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제 4 장

방위산업 역량

제 4 장

방위산업 역량

제 1 절 주요 방위사업체 역량

제 2 절 주요 사업별 역량

이 면은 공백임

제 1 절 주요 방위사업체 역량

1. 방위산업 기반 및 경쟁구도

가. 방위산업 기반

- ▣ 영국은 유럽 최대의 방산시장으로 지원 및 장비 분야에 연간 약 160억 파운드를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방위산업에는 약 142,000명이 직접 고용 형태로 종사하며 110,000개 일자리를 추가로 지원한다. 방산 부문 총 매출액은 약 230억 파운드이며 수출이 약 1/4을 차지한다(출처: Industry for Defence and a Prosperous Britain, 2017년 12월)
- ▣ 영국은 주요 군사장비 수출국가 중 하나로 전세계 상위 5개 국가 안에 포함될 정도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2017년 영국 방산수출 총 수주액은 551억 파운드에 달했다(영국 정부 제공)

나. 경쟁구도 현황

- ▣ 탈레스사, 레오나르도사(종전 Finmeccanica사) 등 유럽의 주요 업체(두 업체는 점유율 또는 매출을 기준으로 영국에서 두번째로 큰 방산 업체로 알려지기도 하였다)가 강력한 존재감을 보이고는 있지만 BAE Systems사가 국내 전투기 및 해군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수의 업체도 영국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사는 지상 부문에서,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사는 핵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 ▣ 주요 업체 이외에도 영국 무역 기구인 항공우주산업협회(ADS)가 약 1,000개의 방산관련 조직을 대표하는 등 하위 분야의 방산 공급망에서도 강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4-1] 영국내 주요 방산업체

* 출처 : 영국 국방부

2. 방위산업 역량

가. 방위산업 역량

- 영국의 지출 수준은 자국의 전체 방산기술 기반을 지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2007년 이후 재정 위기로 인해 이 부문 고용은 확실히 위축되었다) 주요 첨단 방산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폭넓고 다양한 방위 산업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항공모함 및 핵잠수함, 전자장치 및 C4I 장비, 유럽 및 미국 제휴업체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유로파이터사의 타이푼 전투기 및 F-35 합동타격전투기 등과 같은 최신세대 전투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의 핵 억제력은 핵무기관리소(Atomic Weapons Establishment, AWE)가 관리하고 있다. 핵무기관리소는 초기 개념, 평가 및 설계, 구성품 제작 및 조립, 운용간 지원, 해체 및 처리에 이르기까지 핵탄두의 전체 수명주기를 관리한다.
- 영국 시장 자체는 규제가 매우 적으며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 업체에 개방되어 있다. 영국 정부는 2005 방위산업전략(및 2010~2015년 영국 전략 방위 안보 검토서)에 따라 국적을 기반으로

로 계약 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며 최상의 가치 및 공급 안보를 가장 우선시 한다. 개정된 2015년 전략 방위 안보 검토서 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은 유지되고 있다.

- 영국 정부가 2012년 발간한 백서인 '기술을 통한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Through Technology)'에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부 분야를 국가 능력으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영국은 이 조약 비준국으로 남아 있음) 제346조에 따라 영국이 보유한 권리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는 안전한 정보 및 통신, 전자전 및 관련 방어기술, 중요 하부체계,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계약업체 보유 필요성 등이 포함된다. 이는 핵 억제력과 같은 플랫폼에 매우 중요하다. 영국은 국가능력목록 전체를 국가 안보 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 목록은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나. 방위산업 전략

- 1997~2010년 동안 집권한 영국 노동당 정부는 2005년에 방위산업 전략을 작성해 발행하려고 했다.
- 하지만 당시 주어진 예산 상정으로 이러한 노력을 거의 무위로 돌아갔으며 보수당 정부의 '2012 기술을 통한 국가안보' 백서가 부분적으로 이를 대체했다. 영국 정부는 2015년 발간한 SDSR를 통해 '기술을 통한 국가안보'백서에서 설정한 원칙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공개 입찰과 기성품 조달에 대한 기본입장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영국 정부가 2012년 발간한 백서인 '기술을 통한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Through Technology)'에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부 분야를 국가 능력으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영국은 이 조약 비준국으로 남아 있음) 제346조에 따라 영국이 보유한 권리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는 안전한 정보 및 통신, 전자전 및 관련 방어기술, 중요 하부체계,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계약업체 보유 필요성 등이 포함된다. 이는 핵 억제력과 같은 플랫폼에 매우 중요하다.
- 이를 위해 국가함정건조전략(2017년 9월에 채택됨) 및 개정된 방위산업전략(Defence and a Prosperous Britain: 방위 산업정책 개정 백서의 형태로 2017년 12월에 발간)에 대한 작업이 2015년에 시작되었다.

❖ 조달 접근방법

- 조달 결정 시, 공급망 참여 및 수출 가능성에 중점을 뒤 영국의 경제적 가치를 구축
- 조달 결정 시, 외국 협력 옵션을 고려하여 조달계획에 제품 국제화 개념을 통합.

❖ 방위산업 지원

- 지적재산권에 대한 접근 방법을 개정하여 영국 정부가 경쟁 업체와 새로운 분야 진입 업체에 더 많은 사업을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
- 방산 조달 참여를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
- 1억 파운드가 넘는 경쟁 계약에서 공급망 계획을 요청하여 공급망 참여를 장려

❖ **국가 함정건조 전략:** 2017년 국가 함정건조 전략은 영국 해군 함정의 설계·건조 부문에 대한 미래를 형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이 전략을 발표하기 이전에 저명한 영국 사업가인 존 파커 경은 정부 요청을 받아 독립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가 이 보고서(2016년 11월에 발표)에 포함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30년 함정건조 계획 작성
- 조달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달 관행 전환(보증인-고객 조달 관리 모델을 구축)
- 국방부 조달관리 절차 간소화
- 해군 수출 진작을 위한 더 강력한 국가협조 노력
- 국가안보 및 능력 유지를 위해 영국에서 군함 건조 활동 지속
- 국가 해군혁신센터 설립
- 관련 일자리 유지 및 추가 훈련 기회 창출 지원

❖ 영국 국방부는 파커 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수용했다고 2017년 9월 6일 발표했다. 구체적 발전 내용에는 각각 2억 5,000만 파운드 고정가격으로 타입31E 다목적 호위함(GPF) 5척 구매, 영국에서 이들 함정 건조,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조선소 간 건조작업 분담방안 추구, 다목적 호위함(GPF)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조 장려 등과 같은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1. 개요

- ▣ 영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방산 생산을 하는 포괄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조달관행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려고 함에 따라 이런 광범위한 능력을 지속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영국 정부는 국가 방산능력의 중요한 특정 분야에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다른 분야를 경쟁에 개방하였다.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은 항공우주, 통신 및 네트워킹, 첨단 기술 엔지니어링 및 체계통합 분야 방위산업 기반능력을 개발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더욱 전통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능력 분야에 대한 중점을 줄였다.
- ▣ 조달 분야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신형 무기체계에 대한 개발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영국 방위산업은 자금자족체제로부터 국제협력체제로 중대한 변환을 했다. 예를 들면, 영국 정부는 장갑차량 제작능력을 감소시키고 외국 체계를 우선 수입하였으며 영국 무기에 대한 주요 성능개량 및 지속성 유지사업 계약은 미국 업체들과 체결하였다.

2. 사업별 역량¹⁰⁾

가. 항공우주

- ▣ 영국은 항공우주 기술 분야에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이 역사적으로 해리어(Harrier) 및 토네이도(Tornado) 전투기와 호크(Hawk) 훈련체계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유로파이터 타이푼(Eurofighter Typhoon) 전투기, F-35 라이트닝(Lightning) II 전투기, 무인체계들을 공동 생산한 결과 달성된 것이다. 2001년에 영국의 웨스트랜드 헬리콥터스(Westland Helicopters)사와 이탈리아의 오거스타(Agusta)사가 합병되어 이탈리아 소유의 오거스타웨스트랜드(AgustaWestland)사(현재 Leonardo Helicopters사, 2016년부터 레오나르도사로 명칭을 바꾼 Finmeccanica사의 자회사임)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이 회사가 영국에서 민간 및 군용 헬기를 제작하고 있다.
- ▣ BAE Systems사를 포함한 영국 업체들은 전투기 설계 및 제조뿐만 아니라, 레이더, 임무체계,

10) Jane's IHS Markit, Market Report - United Kingdoms

통신, 능동 및 수동식 방어장비, 항공전자장비, 전자식 체계, 다양한 다른 방산제품을 포함한 항공우주체계 및 하부체계를 개발, 제작하고 있으며, 많은 국제 제휴업체들과 함께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영국은 MBDA (UK)사, 탈레스 UK사, 록셀(Roxel)사(UK Rocket Motors), 키네틱(QinetiQ)사와 같은 업체들을 통해 첨단 유도무기를 제작하고 있다.

- ▶ 다른 특정 역량에는 비상 탈출 좌석(Martin Baker), 군용 항공기 엔진(롤스 로이스(Rolls Royce)), 항공우주 수명 주기 지원 및 지속성 유지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영국은 메지트(Meggitt) 그룹(정밀 엔지니어링 구성품 및 체계 설계 및 제작), GKN 에어로스페이스 사(다양한 미국 및 유럽 군용 항공기에 대한 구조물 및 구성품 공급), 코브햄(Cobham)사(특수 체계 및 구성품), 울트라 일렉트로닉스(Ultra Electronics)사(통신 및 전자장치) 등과 같은 업체들을 통해 기술 및 엔지니어링을 지원함으로써 항공우주 및 방산공급망 내에 강력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나. 함정

- ▶ 영국은 주요한 수상전투함, 항공모함, 핵잠수함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등 군용 함정건조 전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 해군 부문의 제작 및 지원 두 분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BAE Systems사이지만, 잠수함 및 수상군함에 대한 재장비, 성능개량, 운용간 지원을 하는 데본포트 로열 도크야드(Devonport Royal Dockyard)사는 밥콕 마린(Babcock Marine)사가 2007년 인수한 DML(Devonport Management Limited)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밥콕 마린사는 또한 잉글랜드 남서부에 소재한 애플도어(Appledore) 조선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조선소에서는 최근에 아일랜드 국방부를 위해 연안초계함을 건조하였으나, 수주량의 부족으로 인해 2018년 11월 이 시설을 폐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시설 이외에도, 잉글랜드 북서부에 소재하며, 민간이 소유한 카멜 레어드(Cammell Laird)사의 능력도 주목할 만하다. 이 회사는 함정 수리, 전환 및 기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데본포트(Devonport) 조선소는 유럽 최대 해군 도크 시설 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밥콕 /DML사는 단일 핵재장비 단지(Single Nuclear Refit Complex)를 건설·운영하는 업체로 선정되어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밥콕/DML사는 군함 현대화사업과 해군 무기체계 유지 및 성능개량사업을 설계, 개발 및 시행하는 광범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DML사는 핵잠수함 재장비 및 연료 재급유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 ▶ 영국의 해군 방위산업 역량도 또한 체계 및 하부 체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영국 업체들은 다양한 첨단 능력들을 설계 및 제작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투체계, 임무체계, 사격통제, 첨단 센서 및 레이더 체계, 음파 탐지기, 해군 함포, 해군 미사일, 어뢰, 자율적 무인체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롤스 로이스사는 해군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

다. 기동화력

- BAE Systems사의 Land UK 부문은 챌린저(Challenger) 주력전차, 워리어(Warrior) 보병 전투장갑차, 불독(Bulldog), 타이탄(Titan), 트로이언(Trojan), 테리어(Terrier), 팬더(Panther) 차량 등과 같은 전투차량을 설계, 제작 및 수명 주기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1월 라인메탈(Rheinmetall)사와 BAE Systems사는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라인메탈사가 BAE Systems사의 랜드 UK의 지분 55%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미국이 소유한 제너럴 다이내믹스사 및 록히드 마틴사가 각각 영국 시설을 이용하여 영국의 Scout SV 사업(현재 Ajax 사업. 종전의 미래신속효과체계(Future Rapid Effects System, FRES)사업의 일부로 개발됨), 워리어 능력 지속성 유지사업(Warrior Capability Sustainment Programme)을 추진하고 있다.
- 이들 업체 이외에도,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Supacat사는 소형 장갑차와 고기동성 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펜맨 엔지니어링(Penman Engineering)사는 2011년에 크리에이션(Creation)사를 인수하였고, 4×4 및 6×6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WFEL사는 영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전술 교량설치 솔루션 제작업체로 유명하다. 이 회사는 전세계 39개 국가의 군부대에 제품을 공급하였으며, 2012년에 독일 KMW(Krauss-Maffei Wegmann)사에 인수되었다.

라. C4ISR

- 영국에 기반을 둔 업체들은 광범위한 C4ISR 제품을 생산할 수 있지만, 이들 역량의 대부분은 외국 회사로서 영국에 기반을 둔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다. 앞 절에서 설명된 차량탐재 체계 이외에도, 영국이 제작한 C4ISR 체계에는 전술 무전기, 전술 네트워크, 전자전 체계, 고정 및 이동식 레이더 체계, 워치키퍼(Watchkeeper) 무인항공기(탈레스(Thales) UK사), 네트워크 기반시설, 소프트웨어, 의사결정 지원체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 전략무기

- 영국은 트라이던트(Trident) 핵미사일을 장비한 밴가드(Vanguard) 잠수함을 통해 핵억제력을 운용하고 있다. 영국의 핵 재고무기에 대한 일상적인 운용 및 유지 등 관리활동은 민간업체인 AWE ML(AWE Management Limited)가 수행하고 있다. AWE ML사는 Serco 그룹, Lockheed Martin사, Jacobs Engineering 그룹 등 3개의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AWE사는 정부소유-계약업체 운영(Government-Owned/Contractor-Operated, GOCO) 협정을 통해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의 부지 및 시설은 여전히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사. 민간자본활용사업(아웃소싱)

- 영국은 전통적으로 공공 부문이 수행했던 지원 역할을 아웃소싱하는 민간자본활용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에 앞장섰다. 국방부 언급에 따르면 2015년 3월 현재, 국방부 책임하에 GB95억 파운드 규모의 민간자본활용사업 총 41건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자본활용사업은 자본자산의 제공 또는 재정비에 기반을 두고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미래전략적 자금유기(FSTA) 사업(Voyager사)은 이러한 전략의 한 예이다. 이 사업은 영국 핵무기에 대한 정비로부터 군용 플랫폼에 대한 지속성 유지, 군수 서비스 및 세탁, 음식제공 등과 같은 낮은 수준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세르코사(Serco)는 1960년대 이래로, 지상, 해상, 공중 분야 방산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안전한 군사통신으로부터 영국 핵무기기구 관리(Lockheed Martin사 및 Jacobs Engineering사와 제휴)에 이르기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면은 공백임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제5장
진출 전략

제 5 장

시장진출 전략

제 1 절 방위산업 시장 분석

제 2 절 진출 전략

이 면은 공백임

제 1 절 방위산업 시장 분석

1. 시장 분석¹¹⁾

가. 주요 시장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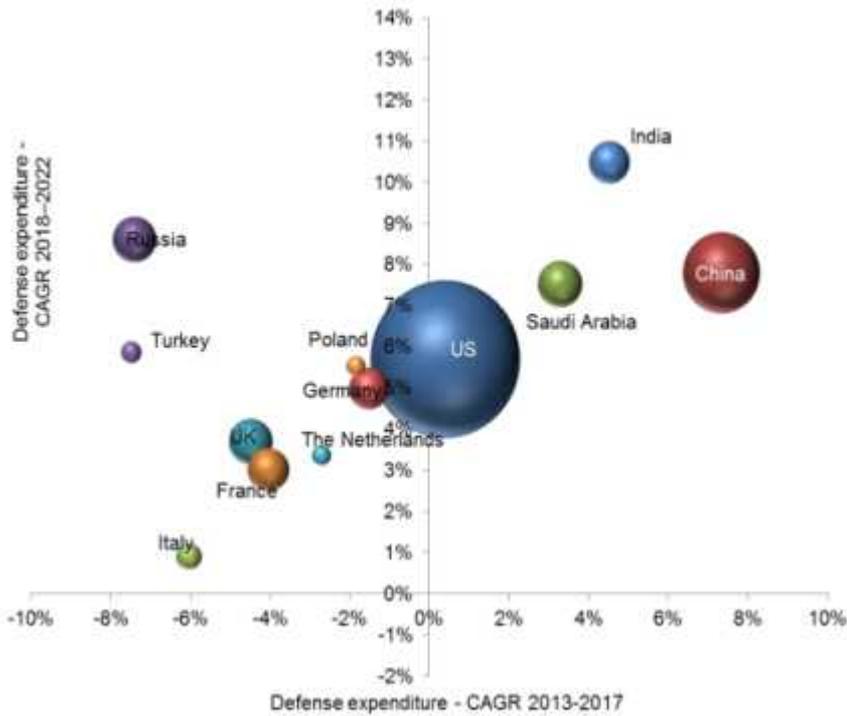
- 영국은 세계 주요 국방 지출 국가 중 하나이며 영국보다 지출이 많은 국가는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프랑스뿐이다. 2013년~2017년 사이 영국의 국방 지출은 연평균성장률 -4.49%를 기록하며 감소했으나, 향후 다양한 조달 사업과 현대화를 위한 투자로 인해 국방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방 지출은 연평균 3.7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아래 표와 그림에 세계 주요 시장과 비교한 영국 국방 예산 성장률이 제시되어 있다.

[표 5-1] 국방예산성장률, 2017년

국가	2013~2017년 연평균 성장률	2018~2022년 연평균 성장률	2017년 예산 (10만 달러)
미국	0.40%	5.72%	587
중국	7.33%	7.81%	154
사우디아라비아	3.29%	7.54%	51
러시아	-7.40%	8.62%	49
영국	-4.49%	3.71%	48
프랑스	-4.04%	3.03%	44
인도	4.52%	10.49%	42
독일	-1.5%	5.0%	41
이탈리아	-6.04%	0.92%	16
터키	-7.49%	5.88%	11
네덜란드	-2.71%	3.38%	9
폴란드	-1.85%	5.55%	9

출처: SDI 분석

11) Future of the UK Defense Industry - Market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s to 2022, Strategic Defence Intellig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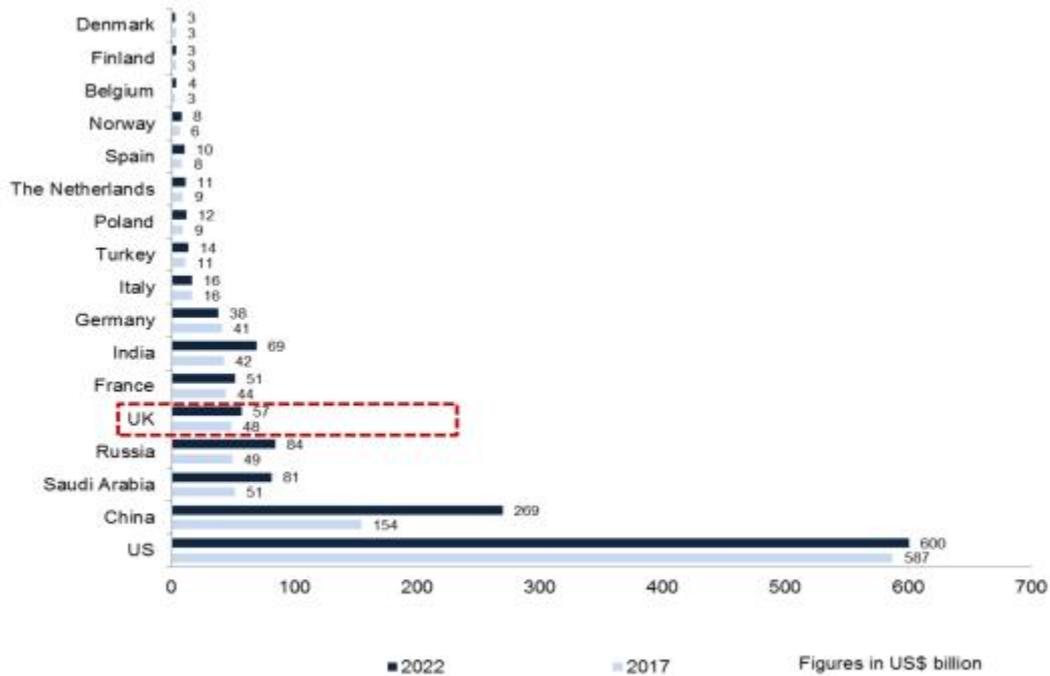
[그림 5-1] 주요 시장과의 비교 - 2013~2017년 대 2018~2022년

* 출처 : SDI 분석

* 주: 동그라미 크기는 2017년 국방 지출(달러 기준)을 나타냄

나. 시장 구매력

- ❖ 영국은 세계 10대 국방 지출 국가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 ❖ 영국의 2017년 국방 예산은 482억 달러로, 세계 주요 방산시장 중 하나이다. 영국 정부가 군사 장비 조달과 안보 강화를 위한 전체적 표준 향상을 추진함에 따라, 2022년에는 국방 예산이 568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2022년 최대 국방 지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아래 그림에 상위 국방 지출 국가의 2017년 국방 지출과 2022년 예상 지출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5-2] 세계 주요 군비 지출국의 국방 지출(10억 달러), 2017년 및 2022년

* 출처 : SDI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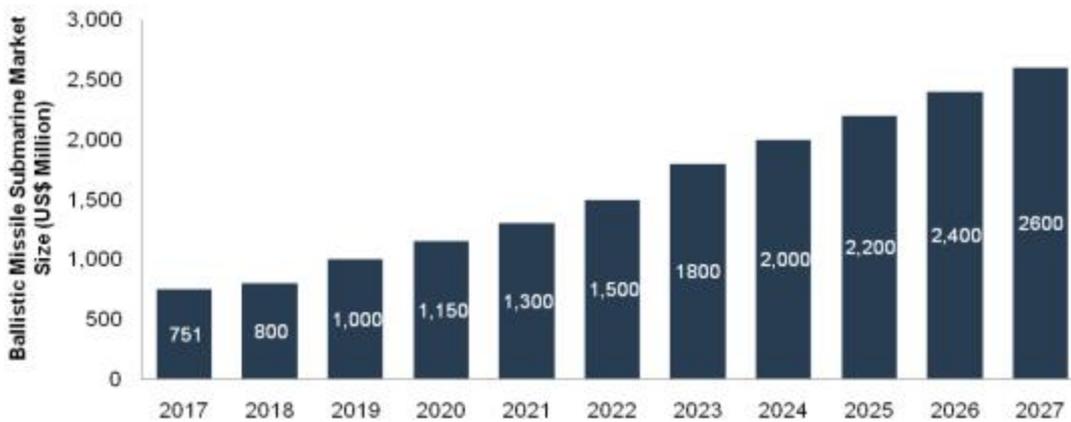
* 주: 수치는 1의 단위로 반올림

2. 진출 유망 분야

가. 탄도미사일 잠수함

- 핵탄두를 갖춘 탄도미사일 잠수함, 즉 SSBN(SS-Ballistic missile-N)이 영국 방위 전력을 위한 최대 투자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국 해군 SSBN 함대는 트라이던트(Trident) 탄도미사일 탑재 및 발사가 가능한 뱅가드급 잠수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은 2018년까지 뱅가드급 잠수함을 운용하고 이후 신형 SSBN으로 이를 대체하여 해군의 작전 능력을 개선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해 신형 SSBN 획득 사업인 Successor 사업을 개시했다. 이를 통해 기존 뱅가드급 잠수함이 대체될 것이다. 국방부는 2015년 11월에 영국 해군을 위한 신규 핵탄도미사일 잠수함 4척을 약속했다. 영국 SSBN 시장은 2017년 7억

달러 규모였으며, 2027년에는 26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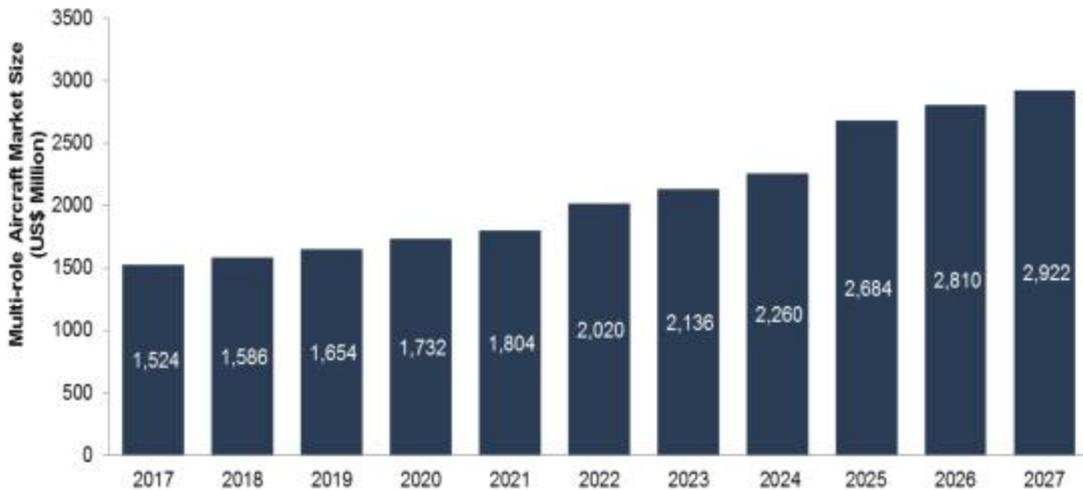


[그림 5-3] 탄도미사일 잠수함 시장 규모(100만 달러), 2017~2027년

* 출처 : SDI 분석

나. 다목적 항공기

- 영국 정부는 다양한 임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에 다목적 항공기를 추가하고자 한다. 국방 부에서 현재 영국 해군 및 공군을 위한 F-35B 라이트닝 II 항공기 조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발표된 사업은 미국 및 다른 8개국과 함께 진행하는 다국적 획득 사업이다. 최신 2015년 전략국방안보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F-35B 라이트닝 II 항공기 138대를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납품이 완료되어 군사 작전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35B는 지상 기지에서 운용 가능하며 공중 방어, 지상 공격, 정찰 임무를 포함한 광범위한 종류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분야에 속하는 다른 주요 사업으로는 공중 초계, 평화 지원, 고강도 분쟁 저항 등의 작전에 사용되는 타이퐁 다목적 항공기 획득이 있다.
- 다목적 항공기 분야는 향후 영국의 군용 항공기 지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다목적 항공기 시장 규모는 2017년에 15억 달러였으며 연평균성장률 6.73%를 기록하며 2027년에는 2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2027년 기간동안 영국의 해당 분야 누적 지출은 231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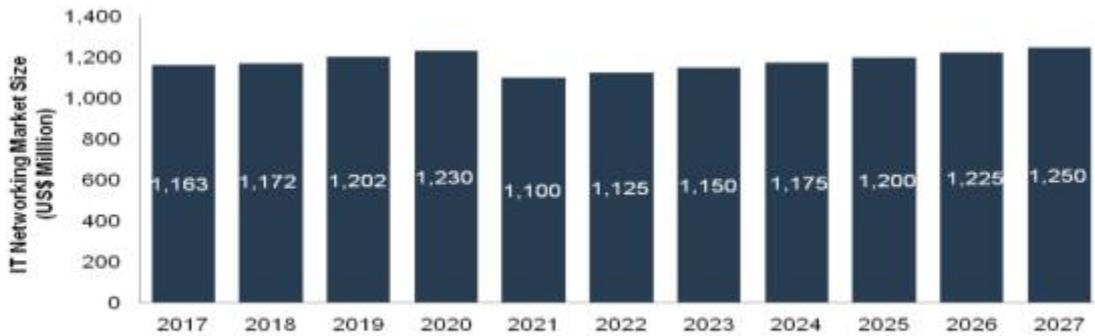
[그림 5-4] 다목적 항공기 시장 규모(100만 달러), 2017~2027년

* 출처 : SDI 분석

다. IT 서비스 네트워크 연결

- 영국은 군에 네트워크 연결 및 기타 IT 중심 능력을 통합하는 것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군사 구조 내 정보 기술 통합을 중시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전력 구조를 개발하려는 영국 국방부 계획의 일부이다. 무기체계, 위성 네트워크, 정보수집 분야에서 군의 IT 의존도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집단에서 군사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영국 국방부는 미국, NATO 동맹국, 연합국과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작전 지역에 걸쳐 군 전술 부대를 통합하는 미국의 네트워크 중심전 교리와 유사한 전략을 추구한다. 영국은 군의 능력 향상을 위해 간선 및 중추 체계와의 네트워크 가용 연결 구축에 투자 중이다. 영국 국방부의 IT 지출 대부분은 네트워크 연결 지원을 위한 통신 장비와 정보 변환 및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조달에 사용된다.
- 영국 국방부는 앞으로 통신 및 IT 네트워크가 플랫폼·센서·무기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 여러 대규모 네트워크 중심 IT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 국가안보전략 및 전략국방안보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혁신적 솔루션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1억 6,500만 파운드 규모 국방사이버혁신기금(Defence and Cyber Innovation Fund)의 일부로서 국방 예산의 1.2%를 과학·기술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 분야 주요 프로그램에는 국방정

보 기반시설(Defence Information Infrastructure, DII) 사업이 포함되는데, 이 사업의 목표는 배치된 작전 및 해군 함정에 능력을 추가하여 2,000개가 넘는 현장의 사용자 30만 명을 지원하는 단말 15만 개를 구축하는 것이다. 영국 네트워크 연결 시장은 2017년 12억 달러에서 2027년 13억 달러로 규모가 커져 연평균성장률 0.5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2027년 누적 시장 가치는 130억 달러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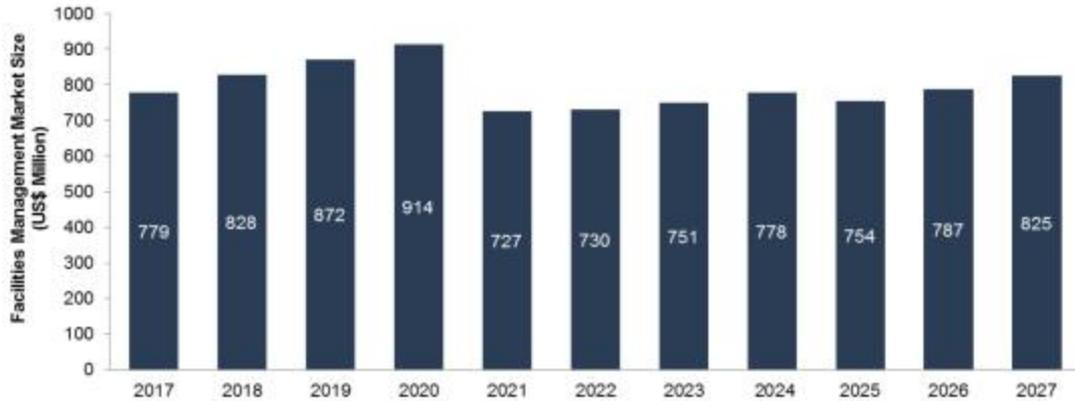
[그림 5-5] 네트워크 연결 시장 규모(100만 달러), 2017~2027년

* 출처 : SDI 분석

사. 시설 관리

- ◆ 영국 국방기반시설청(Defence Infrastructure Organisation, DIO)은 시설 관리를 매우 중시한다. 영국은 향후 계획을 공개하고 기업의 이 분야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영국은 차세대 부동산 계약(Next Generation Estate Contracts, NGEC) 사업에 따라 계약기간 5~10년의 44억 파운드 규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중점을 두는 주된 지역은 중부 지역(Regional Prime Central)(잉글랜드 북부, 웨일스, 미들랜드(Midlands), 이스트앵글리아(East Anglia)), 남서부 지역(Regional Prime South West)(잉글랜드 남서부), 남동부 지역(Regional Prime South East)(잉글랜드 남동부)이다. 또한 국방부는 인사보훈청(Service Personnel and Veterans Agency, SPVA) 연금 관리 및 인력 서비스 제공을 위해 CSC사와 4억 파운드 규모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 조달 및 현대화 업무와 후속 유지보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영국이 이 분야에 계속 큰 금액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영국 방산 부문 내 시설 관리 시장은 2017년 7억 달러에서 2027년 8억 달러로 규모가 커져 연평균성장률 0.1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7~2027년 누적 시장 가치는 87억 달러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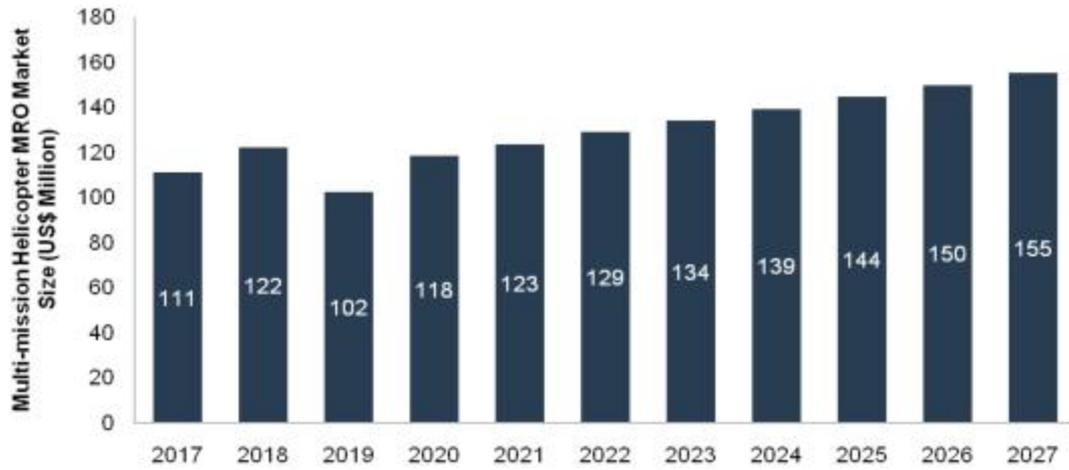


[그림 5-6] 시설 관리 시장 규모(100만 달러), 2017~2027년

* 출처 : SDI 분석

아. 다중임무 헬기 MRO

- ◆ 영국의 노후화된 군용 헬기 교체 및 기술 혁신이 다중임무 헬기 MRO 시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로 조달된 헬기와 2018년 이후 조달될 헬기 유지보수가 시장에 추진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2015~2020년 AW101 멀린 헬기 지원을 위해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와 5억 8,000만 파운드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또한 영국 수색·구조 헬기 지원 및 서비스를 위해 소테리아 컨소시엄(Soteria Consortium)과 93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다른 계약으로는 영국 군용 헬기 부대 2개에 엔진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계약이 있다. 이러한 동향은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 영국 방산 부문 내 다중임무 헬기 MRO 시장은 2017년 1억 1,100만 달러에서 2027년 1억 5,500만 달러로 규모가 커져 연평균성장률 3.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7] 다중임무 헬기 MRO 시장 규모(100만 달러), 2017~2027년

* 출처 : SDI 분석

제 2 절 진출 전략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표 5-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내 최대 규모의 방산시장 보유 • 모든 방산분야에 우수한 역량 보유, 특히 항공우주, 함정 분야 세계 최고수준 기술력 보유 • 국방분야 친 중소기업 정책 추진 • 해외기업에 대해 차별없이 지원 • 방산분야 세계 2위 해외직접투자 진출 대상국(1위 미국) • 투명한 입찰/조달 절차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조달 규정에 따라 비유럽권 기업 일부 차별 •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방산 업체 다수 → 높은 수준의 경쟁 • 한영 업체간 수출 네트워크 부족 • 정보통신 및 보안등 일부분야 타국적 인원 사업 참여 제한
기 회(Opportunity)	위 험(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 예산 및 조달 규모 증가 • 사이버 위협 증대로 사이버 보안 분야 투자 증가 • 브렉시트 → 對영국 수입 대체 효과 • '19년 6월 한-영 FTA체결 → 시장진출 확대 • 글로벌 방산기업 네트워크를 활용 유럽내 타국가 진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렉시트 → 미국 등 非EU국가와의 경쟁 심화 가능성 • 방산분야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강화 추진 • 영국 중소기업 대비 국내 방산 중소기업 기술력/수출 역량 부족



구 분	주요 내용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개척 및 기술 습득을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진출 •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한 진출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분야 중소기업 공동연구 개발 또는 합작법인 진출 지원 • 국내 기술 우수분야(기동화력 등) 위주의 차별화 전략 수립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렉시트 후 영국내 글로벌 업체 GVC 편입 선점 • 국가간 협약 체결을 통한 수출판로 개척
WT 전략 (위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위주의 틈새시장 공략 진출방안 수립

- ❖ 영국 방산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국방비 지출 삭감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크면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개방된 시장 중 하나이다.
- ❖ 모든 방산 분야에 걸쳐 평균 이상의 생산역량을 보여주며, BAE System을 필두로 한 합정 및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체계업체 뿐만 아니라, GKN Aerospace등 우수한 역량의 Tier 1 업체들도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으로 인해 중소기업도 비교적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 ❖ 진입 장벽은 낮으며 영국 정부는 국내 업체든 외국 소유 업체든 영국 내에서 활동하는 업체 지원에 적극적이다. 암호화 장비 같이 민감한 분야에는 제한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안검색절차 및 접근 제한조치는 인원 단위로 이뤄진다. 또한 영국은 합법적인 방산수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정부 수출촉진기관인 영국 국제무역부(2016년 7월 이전의 영국 무역투자부) 산하 방산보안기구(DSO)를 통해 지원한다. 영국은 수출 장려 정책에서 영국에 본사를 둔 업체와 해외에 본사가 있는 영국 소재 자회사를 차별하지 않는다.
- ❖ 영국은 기술 수준도 높으면서, 시장도 개방된 몇 안 되는 시장이며 이는 Buy American Act 등을 통해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미국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 방산시장은 우리나라의 주요 체계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진입가능하며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기술 개선과 혁신 능력의 부족, 적절한 금융 및 인적자본의 부족, 국제기준 준수를 위한 능력 부족, 대규모 계약 실행 능력 부족등으로 인해 시장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이에 본 보고서는 이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주요 체계업체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합작법인을 통한 진출, 그리고 육성 초기단계인 중소기업은 영국 중소기업 정책 활용 및 GVC 편입을 통한 진출, 즉 이원화된 전략을 통해 시장진입을 제안한다.

2. 해외직접투자(합작법인)를 통한 진출

가.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제도

- ❖ 외국인 투자 참여 상한을 두는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영국은 정부가 황금주 정책으로 통제하는 몇몇 업체(BAE Systems, Rolls-Royce)를 제외하면 영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다. 100% 투자를 허용하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경우에만 인증 절차등을 통해 간접 통제한다.
- ❖ IHS사 자료에 의하면 영국이 전세계 방산부문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장 많이 몰려드는 2번째 국가로 나와 있다(1위는 미국). 세계 100대 방산기업 중 31개가 영국에서 현저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11개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 ❖ 이론상으로 정부는 2018년 이전 매출액 7,0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또는 수익의 25% 이상을 영국 시장에서 얻고자 하는) 방산투자 또는 이중목적 투자에 국가안보를 근거로 투자에 개입할 수 있다. 2017년 연말에는 이 기준을 100만 파운드로 낮추고 통보 체계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다음 해인 2018년에는 영국 기업법 개정 협상이 진행되었다.
- ❖ 2017년 10월 정부에 더 강한 개입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발표됐다. 이 제안에는 매출 기준액을 100만 파운드로 절감, 25% 영국 내 매출 요건 철폐, 정부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더욱 광범위한 거래를 정밀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도입, 국가 안보에 절대적인 부문(핵에너지와 국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투자의 정밀 조사를 위한 알림 메커니즘(자발적 혹은 의무적 체계)의 도입 구상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2017년 10월 개혁은 2017년 후반과 2018년 초로 설정된 자문 기간을 거쳤으며 2018년 6월 제정된 영국 사업법에 개정을 통해 제정됐다.

나. 해외직접투자 사례 - Royal TenCate, AML UK 인수

- ❖ 미국에 본사를 둔 Royal TenCate사는 기갑, 방탄복 및 복합제 생산을 주력하는 업체로 영국 내 군용 차량, 항공기 및 함정용 기갑 시장 진출을 위해 AML UK를 2010년 인수하였다.
- ❖ 영국 기갑 시장은 획득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었으며, AML UK는 연간 매출 1천만 파운드 정도의 실적을 가진 시장 내 주요 업체중 하나였다. AML UK는 당시 기갑 분야에 혁신적인 연구·개발 설계 그리고 시제품 제작 및 생산절차 설계 역량을 보유한 업체로서 영국 정부와도 여러 공동 사업을 진행하였다.

- ◆ TenCate사는 기존 기술 및 생산 노하우와 AML UK의 기술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AML UK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영국 및 유럽지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TenCate Armoured UK는 '14년 덴마크 해군 Iver Huitfeldt급 호위함 및 Absalon급 지원함의 탄도 미사일 보호를 위한 기갑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5년에는 BAE System CV90용 기갑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AML UK 인수를 통해 유럽시장에 진출하였다.

다. 해외직접투자 절차



[그림 5-8] 해외직접투자 절차

* 출처 : Nathan Associates London

- ◆ **투자대상 선정(Location Search):** 해외직접투자에 앞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 대상 국가 및 업체를 선정해야한다. 국가 선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하는 1차 투자 요소에는 위험성(정치, 안보, 경제), 노동력의 기술 수준, 인건비, 운영비용, 기반시설(운송, 비용), 법인세율, 자본 및 수익 송환 용이성이 있으며, 선택적으로 고려되는 2차 투자 요소에는 노동

력이동의 용이성, FDI에 대한 정부 지원, 삶의 질, 기업 환경, 해당 국가의 과거 FDI 이력 등이 있다.

- ❖ **최종 후보군 선정(Long List, Short List):** 투자대상 선정 후 기업은 기업의 투자 담당 부서를 통해 후보군을 압축한다. 기업의 사업관리자 또는 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투자 가능 후보군을 선정하고, 각 후보를 분석하여 3~5개의 국가/기업을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한다.
- ❖ **투자촉진기구(Investment Promotion Agency, IPA) 연락(Contact IPA):** 최종 후보군이 선정된 후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각 국가의 IPA와 연락한다. IPA와 연락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획득하고 필요 시 국가 및 업체 사전 방문을 위해 일정을 협의한다.
- ❖ **업체 요구사항 전달(Business Needs):** 1,2차 투자요소에 대한 업체 요구사항을 IPA에 전달한다.
- ❖ **IPA 투자(유치)제안서 발송(Investor Proposition):** 업체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를 끝나면 IPA는 투자기업에게 투자 제안서를 발송한다.
- ❖ **투자자 방문 및 협상(Investor Visit, Negotiations):** 업체의 요구사항과 IPA의 제안서를 통해 협의점에 이르면 투자 기업은 공식적으로 투자대상국/기업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한다.
- ❖ **해외직접투자 체결(IPA Deal):**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투자기업과 IPA는 FDI 투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3. 정부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활용

가. 개요

- ❖ 영국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영국 정부의 전체 대(對)기업 지출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영국 국방 부문의 장기적 비전 실현의 필수 요소로 보고 신생기업과 소기업이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기회를 더욱 수월하게 포착하고 경쟁하며 그 기회를 쟁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 ❖ 영국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국가 기반으로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에 외국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 기반 사업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 또는 합작법인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 ❖ 영국의 중소기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5-3] 영국 중소기업 기준

매출 또는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액(유로)	직원 수	규모
< 5,000만 또는 <4,300만	< 250	중간 규모 업체
< 1,000만 또는 <1,000만	< 50	소규모 업체
< 200만 또는 <200만	< 10	소상공인

나. 주요 지원사업

❖ SME 서치라이트(Searchlight):

- 국방부 출연기관인 영국국방과학기술연구소(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DSTL)는 국방분야의 중소기업유치를 위해 SME Searchlight(중소기업 탐조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신규 중소기업을 영국 국방 공급체계에 편입시키고 국방분야 중소기업에 4천만~4.5천만 파운드의 연구비용을 지원 하는 것이다. 참여기업은 연구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DSTL 및 협력사들이 제공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다.
- DSTL은 향후 12개월 동안 무선 주파수 설계, 인공지능, 합성생물학, 모의 전쟁 등 네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춘 행사, 워크숍, 자문상담 등의 개최를 계획 중이다.
- SME 서치라이트 사업은 스타트업부터 기성 업체까지 창의적 발상을 가진 모두의 의견을 경청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의 협력 절차를 간소화하며, 이를 통한 정부 협력이 양측 모두에 의미있고 가치있는 파트너십임을 보이게 한다.

❖ **지출내역 조사 및 중소기업 참여기회 조사:** 영국 정부는 BAE Systems 등 주요 공급사의 지출 내역을 조사(약 88%의 응답률) 국방부와 주요 대형공급사들이 공급망 내에서 SME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DIO(Defence Infrastructure Organisation) SME 참여 유도:** DIO는 상업 전략을 통해 SME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지속가능성과 성장에 대한 정부의 목표를 지원함. DIO는 SME 참여를 늘리는 방안의 하나로 영국 공공조달 서비스(CCS) 체계를 활용한다. 또한, 체계업체가 대규모 조달 사업의 기회와 혜택을 SME와 공유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개선한다. 이 목표는 자격 요건에 규모나 경력 면에서 차별이 없도록 하고, 기존 공급처가 SME와 협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정부의 모범 공급망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실현할 것이다.

❖ **강소 중소기업 (SME Champion) 지정:** SME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소기업의 모범사례 공유

❖ **국방공급자포럼(Defence Suppliers Forum, DSF):** 국방부는 국방 산업과의 관계에 큰 변화

를 일으키고자, DSF를 설립하여 국방부의 새로운 접근방법이 SME를 잘 대변하도록 했다. DSF과 같은 맥락으로 국방조달장관이 주재하는 국방부의 국방 SME 포럼은 SME가 국방 분야 종사에 대한 SME만의 관점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 ❖ **국방혁신부서(Defence Innovation Unit, DIU):** 국방부는 DIU를 신설해 국방 전 분야에서의 혁신 활동을 관리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정부와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회를 포착하고자 한다. 또한 DIU는 국방혁신기금(10년간 예산 약 8억 파운드)을 집행한다.
- ❖ **국방혁신기금(Defence Innovation Fund, DIF):**

 - DIF는 비즈니스의 변화를 장려하며, 혁신적 솔루션 추구하고 공급을 지원한다. 기금은 또한 혁신에 대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산업, 학계, 동맹국과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고 가장 시급한 국방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돕는다.
 - 현재까지 DIF는 사업 166건에 4,500만 파운드 정도를 투자했다. 기금은 국방안보촉진위원회(Defence and Security Accelerator, DASA)나 전선사령부의 혁신 허브 등의 기관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 DASA는 영국의 군사 안보 사용자들이 혁신적인 발상, 장비,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4월부터 DASA는 300건이 넘는 제안서에 재원을 지원하고 5,000만 파운드가 넘는 자금을 분배했다. DASA는 특정 주제에 주어진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경진대회 및 공개 모집(Open Call) 행사를 개최했다.
 -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영국군의 합동 작전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모든 군사령부에 혁신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혁신 허브가 구축되었다. 해군의 DARE(Discovery, Assessment and Rapid Exploitation) 팀, 육군의 ARIEL(Army Rapid Innovation and Experimentation Laboratory), 공군의 RIX(RAF Innovation Exchange), 영국 합동군사령부의 jHub8등이 있다.
- ❖ **팀레이도스(Team Leidos):** 팀레이도스는 국방부가 필요로 하는 각종 원자재 상품의 조달과 재고 운영을 담당한다. 여기에는 식량, 의류, 의료약품, 일반 소모품, 석유, 윤활유, 가스를 포함한 자원의 조달, 저장, 재고 운영 및 배급이 포함된다. 협력 업체로는 LSL(Leidos Supply Ltd)사, TVS SCS(TVS Supply Chain Solutions)사, K&N(Kuehne and Nagel)사 등이 있다. 이들 업체의 향후 18개월에 대한 미래 요구사항 관련 정보는 각각의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 **FDIS 사업:** FDIS(Future Defence Infrastructure Service) 사업은 DIO의 우선순위 사업으로, 규모는 37억 파운드에 달한다. FDIS 사업 내용에는 경성/연성 시설 관리, 훈련 및

주거용 구역 관리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국가적, 지역적 계약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지금과 2020년 사이 경쟁을 통해 입찰된다. DIO는 다음과 같은 업체를 찾고 있다.

- 부동산을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운영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조력할 수 있는 업체
- 고객의 변화하는 요청에 적응할 수 있는 업체
- 부동산 최적화 기간에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FRP 사업:** FRP(Future Recruiting Programme) 사업은 필요한 인력유입 수요에 맞춰 영국 군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3군 신병모집 모델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사업 계획은 원래 캐피타(Capita)사와의 육군 계약이 2022년 종료되는 기존의 신병모집 사업(Recruiting Partnering Project)을 뒤이을 후속 사업으로 영국 육군이 2018년 3월 수립했다. 그러나 영국 군 전체에 시너지 효과와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사업 대상을 3군 전체로 확대하여 3군 모두를 위한 공통 모집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 **스카이넷 군용 통신위성 사업: SDW 및 EC 단계**

스카이넷(SKYNET)은 약 70억 파운드로 추산되는 군용 통신위성 사업이다. ISS 스카이넷 팀은 에어버스 D&S(Airbus Defence and Space)사와 체결한 스카이넷 5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민간자금으로 위성을 개발하여 발사 및 운용하는 방식) 단계가 종료되는 2022년 8월 31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스카이넷 서비스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구상은 스카이넷 SDW(Service Delivery Wrap)로 알려져 있으며 2019년 말에 경쟁입찰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스카이넷 팀은 초가시선 통신 체계, 통신 능력 및 서비스를 2040년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구상은 스카이넷 6 EC(Enduring Capability)로 알려져 있으며 2020년 초반이나 중반에 경쟁입찰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다.

❖ **P-8A 포세이돈 훈련 지원 제공 사업:** 영국 보잉 디펜스(Boeing Defence UK)사와의 P-8A 포세이돈 훈련 지원 제공 사업의 계약은 2020년 7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규모는 약 2억 2,500만 파운드로 추산된다.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는 장거리 대잠전, 대함전, ISR 임무 수행을 위해 설계되었다. 영국 보잉 디펜스사는 하도급 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공고는 온라인 국방 계약 공급자 포털에 게재된다. 본 사업에는 전문성 있는 SME에 특히 매력적인 요소가 많다. 잠재적 하도급 계약 기회에는 교관, 콘솔 운전자, 시뮬레이션 기술자, 교육과정 설계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4. 브렉시트 후 영국내 글로벌 업체 GVC 편입 선점

가. 브렉시트로 인한 기회

- ❖ 국가와 기업들의 글로벌화 확대, 운송수단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신흥국 및 신흥국 기업의 성장 그리고 지역적 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자유화 확대등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활용이 확대되었다. 영국에 소재한 BAE Systems, Rolls Royce 등도 공급원 다변화를 통한 공급 안정성 증가, 그리고 분업화를 통한 비용 감소를 위해 GVC를 구축하였다.
- ❖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자원 및 경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같은 자체적인 글로벌화 전략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GVC 진입 전략이 선호된다.¹²⁾
- ❖ 우리나라 방산 중소기업은 영국을 비롯한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GVC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GVC 진입을 위해선 해외인증획득을 비롯한 높은 수준의 기술력 및 풍부한 재무 자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흥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낮고, 기술력을 요구하는 부품에 대해선 유럽 내 중소기업에 의존함에 따라 절충교역 외 방법으로 GVC 진출한 사례는 많지 않다.
- ❖ 하지만 최근 신임 존슨 총리의 탈퇴안을 담은 탈퇴 법안이 12월 20일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유럽연합을 공식적으로 탈퇴하게 되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전환기간을 거치게 된다. 현재 다수의 언론은 시간적 문제로, 영국이 완전한 무역협정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뿐만아니라, 영국은 유럽연합과 공동외교방위 정책(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CSDP), 방산정책 협력(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PESCO), 합동군비협력기구(Organisation for Joint Armament Cooperation, OCCAR)등 다수의 방산·안보 협력을 이행하고 있었는데, 브렉시트로 인해 이러한 관계도 위기에 놓였다.
- ❖ 영국내 다국적기업이 영국을 빠져나가는 이른바 브렉소더스(Brexit + Exodus) 현상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관세동맹 탈퇴시 영국 방산기업의 공급망 관리에 차질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이에 대응하여 법인세를 인하하고 비EU국가들과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한국은 영국과 2019년 8월 FTA를 체결하였다.
- ❖ 영-EU 기업간 기존 거래선 유지의 실효성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영국 방산 업체들도 한국을 비롯한 비EU 국가 업체로 수입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인되었다.

12)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과제, 이준호, 김종일

기업명	이전지	비고
Panasonic	한연→암스테르담	'18.10월 유럽본부 이전
Bank of America	한연→더블린, 파리	'18.12월 500여명 이전
Discovery	한연→암스테르담	'19.1월 유럽 HQ 이전
유럽의약청(EMA)	한연→암스테르담	'19.3월 900여명 이전
BNP Paribas	한연→프랑크푸르트, 파리	'19.9월 100여명 이전
Goldman Sachs	한연→프랑크푸르트, 파리	연내 500여명 이전 완료 예정
JP Morgan	한연→프랑크푸르트, 파리	400명여명 이주중

[그림 5-9] '브렉소더스' 현황

* 출처 : KOTRA



[그림 5-10] 유럽 방위산업 내 한국 부품 수요

* 출처 : KOTRA

- ◆ 영국의 EU 탈퇴와 한영 관계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기업들이 영국 방산업체 GVC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이다.

나. GVC 참여 유형 결정

- ❖ 본격적인 GVC 편입 전략 수립 전에 어떠한 유형으로 GVC에 진입할 것인지 선택해야한다. GVC 진입 유형을 크게 둘로 나누면 국내 생산을 기반으로 진입하는 것과 해외에서의 생산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보통 앞서 언급된 해외직접투자나 합작법인을 통하여 진입하게 되는데, 국내 방산 분야 중소기업의 특성상 영국내 업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재무 자원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생산을 기반으로 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국내 생산을 기반으로 진입하는 경우 1. 직접진입, 2. 국내 대기업 연계 진입, 3.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한 진입. 3가지로 참여 유형이 있다.
- ❖ **직접진입:** 앞서 언급된 것처럼 현지 방산업체 GVC에 직접 진입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풍부한 재무자원이 필요하다. 영국 업체도 필요로 하는 기술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외 파트너를 찾는 편이지만, 양국의 중소기업 기술력은 차이가 나는 편이다. 국내에서 직접 진입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절충교역을 통해 진입한다.
- ❖ **국내 대기업 연계 진입:** 국내 대기업과의 연계의 주 목적은 기술력을 상호 보완하고 국내외 생산경쟁력을 높여 GVC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 ❖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한 진입:** 대기업 연계 진입과 마찬가지로 주 목적은 기술력 상호 보완 및 국내외 생산경쟁력 상승이다. 중소기업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협업 개념이 단순한 R&D 협업과 같이 범위가 제한된 협업이 아니라 가치사슬 전반의 생산 활동에 연계된 협업으로 확장되어야 효율성 및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¹³⁾ 중소기업은 협업을 하더라도 기술력, 경험, 수출역량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기술,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다. 경쟁력 강화

- ❖ **해외인증획득:** 영국은 과거 다양한 형태의 국방관련 표준 문서를 활용하였으나, NATO체계의 국방표준화 과정을 통해 국방표준서(Defense Standard)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격문서는 폐지된 상태이다. 영국 국방부의 경우 계약대상물품이 기성품이면서 계약상 고객 요구사항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품질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외의 경우 ISO 9001 또는 AQAP2110, 2120, 2130, 2131 동급을 요구한다. 글로벌 방산기업의 경우에도 사업관리 및 위험관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인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13)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진입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김주권.

[표 5-4] 영국내 주요 글로벌 방산업체 요구 인증 현황

업체명	적용시스템 인증	적용 표준/규격	자체 표준/인증
Boeing	AS9100, AS9110, AS9120 or equivalent, CMMI	-	BQMS
Lockheed Martin	AS9100, AS9110, AS9120, NADCAP	-	-
Raytheon	AS9100, NADCAP	-	PMA
Airbus	AS9100, AS9110, AS9120, NADCAP	-	-
Rolls Royce	ISO 9001	BS EN10204(기계), AS/EN/SJAC 9102(계측)	-

- 수출경쟁력강화:** 다국적 기업이 중소기업을 공급업체로 결정하는 선택 기준을 APEC은 제품의 품질, 가격 그리고 운송능력과 같은 외재적 강점(Hard Strength)과 기업의 운영능력과 안정성같은 내재적 강점(Soft Strength)로 뽑았다. 외재적 강점의 경우 앞서 언급된 품질인증획득 국방 분야에서 품질을 올릴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 외 제품을 홍보 할 수 있는 무역 박람회,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여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재적인 강점의 경우 단기간에 달성하기에는 중소기업 특성상 어려움이 많다. 최근 들어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자원부 또는 방사청(국방기술품질원) 등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진행중이다.

5. 진입 장애요소

가. 국방 예산 삭감 우려

- ▣ 영국 정부는 점점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제어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국방 지출을 지속적으로 줄여 왔다. 그러한 지출 삭감은 조달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국내 방산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에 따르면 영국이 내년부터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있지만, GDP의 2%를 지출해야 하는 NATO 지침을 준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 영국 정부는 국방 장비 중 많은 부분을 국내 방산업계에서 조달하며, 지출이 줄어들 경우 주문 수량 감소로 인해 고정 비용 총당 능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쳐 업체에 난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영국 방산업체는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국방 예산 감소는 HMS 아크로열(Ark Royal)함, 여러 호위함, HMS 오션(Ocean)함 또는 HMS 일러스트리어스(Illustrious)함 퇴역과 2011년 해리어(Harrier) 항공기, 2013년 VC-10 및 트라이스타(TriStar) 항공기 3종 퇴역으로 이어졌다. 챌린저 2 주력전차 보유량 40% 감축 및 중포 보유량 35% 감축과 합동타격전투기(Joint Strike Fighter, JSF) 발주 수량 감소도 예상된다.

나. 영국 및 EU 업체의 독점

- ▣ 영국 국방부는 외국 수출업체에 직접 절충교역만을 허용하며 외국 입찰업체에 경쟁 기반 영국 하청업체 이용을 권장하여 국내 방산업체를 보호한다. 또한 영국 정부는 긴급작전소요(Urgent Operational Requirement) 충족 시 국내 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 영국은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방산 상품 및 서비스 조달이 EU 조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제안된 금전적·기술적 입찰 조건이 비슷할 경우에는 비유럽 기업보다 EU 기업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그 외에도 정부가 다른 유럽 방산업체와의 공동 개발 협약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유럽 방산업체의 입장에서는 시장 접근이 더 어려워진다. 일례로, 영국 정부는 에어버스사 A400M, MBDA사 미티어(Meteor) 등 여러 대규모 사업을 포함한 공동 조달과 2004년 7월 유럽방위청(European Defense Agency, EDA) 설립을 주도했다. EDA는 유럽의 군사 수요가 좀 더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하고 유럽 내 국방 장비 시장의 개방성 증진을 추구하여, 비유럽 기업의 진입 장벽 역할을 한다.¹⁴⁾

14) Future of the UK Defense Industry - Market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s to 2022, Strategic Defence Intelligence

다. 절충교역 제도

- 영국은 방산 기반 투자 유치, 기술 이전, 국가 방산업체의 공급자 공급망 참여, 중소기업 참여 유도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유치하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절충교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영국 국방부는 2012년까지 산업참여(Industrial Participation, IP)라고 불리는 일종의 절충교역 정책을 운영했다. IP 정책은 장비·서비스 조달, 인사·급여관리 서비스, 교육 서비스, 비군사 구매 분야의 절충무역 정책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다. IP 프로토콜에 따라 관련 계약가 100%의 최대 요청 혜택과 자발적 절충교역 기준액 1,200만 유로가 적용되었으며 절충교역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기본계약 기간과 동일하다. IP 제도에 참여하는 입찰 참가자들은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협력할 지역 기관을 선택할 수 있었다. 영국은 IP 제도가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았다. 대신 국방부는 불이행과 결부된 평판리스크에 맡기는 쪽을 선호했다.
- IP 정책은 25년간 이 형태로 거의 개정 없이 운영되었으며 운영 기간 동안 100억 파운드 유치를 지원했다. 이 중 대부분은 미국에 기반을 둔 공급업체에서 나왔다.
- IP 정책은 1990년부터 2012년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지침 2009/81 EC를 통해 절충무역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정책이 폐지되기 전까지 실행되었다. 하지만 영국이 절충무역을 폐기한 주된 이유는 국내 방산업계의 경쟁력 유지에 관한 우려였다. IP 정책은 2012년에 폐지된 후 '국방·안보 산업협력정책(Defense and Security Industrial Engagement Policy, DSIEP)'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되었다. DSIEP는 절충교역에 대한 영국의 대안이며 완전히 자발적으로 이행된다.
- 외국 방산업체는 DSIEP에 참여하여 영국에 투자할 것이 권장되지만, 이를 강제하는 목표나 불이익, 법적 책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에 부여되는 유일한 책무는 매년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여 영국 내 공급망, 연구·개발 투자, 공급망에 참여한 영국 기업에 도움이 되었거나 수출을 증진한 기타 활동 데이터를 통해 영국에 대한 투자 내역을 제시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의 이러한 접근법은 영국 방산 부문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자발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정책으로 2015년 후반까지 총 9개 방산계약업체들이 DSIEP 정책에 동참하는데 그쳤다.
- 2017년 12월 발표한 “국방과 번영의 영국을 위한 산업: 방산정책의 갱신(Industrial for Defence and a Prosperous Britain: Refreshing Defence Industrial Policy)” 보고서에서 영국 국방부는 해당 정책 개시 시점으로부터 5년간 DSIEP에 32억 파운드의 내부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해외 공급업체들도 DSIEP 참여 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공급업체들은 아래 언급된 분야에서 영국기업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권고받고 진행 상황은 12개월마다 평가된다. 공급업체는 IEU와 협력할 수 있도록 자사 내 연락 담당자를 지명해야 한다. 계약 체결은 DSIEP 가입과 이행의 절대 조건은 아니나, DSIEP 가입은 조달 계약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 **할당제, 기준액:** 2012년 전까지는 존재하였으나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
- **이행기간:** 주로 조달 계약의 전체 주기가 되나,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 **페널티:** 공식적인 페널티는 존재하지 않는다.
- **가치승수:** 해당 없음
- **직접/간접:** DSIEP에서는 상업적 간접 사업을 장려하지 않으나 장려되는 계약해지 수단은 아래와 같다.
 - 공급망 활동 및 수출.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영국기업과의 사업 할당.
 - 연구개발투자 및 기술 이전
 - '채무자'가 공급망 활동, 수출, 기술 이전, 또는 안보 부문과 관련된 활동의 장려를 목적으로 영국 내에서 개최하는 판촉 행사
 - 국방과 안보 부문에서 영국기업 수출 지원

참고문헌

국외문헌

- (1) Future of the UK Defense Industry–Market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 to 2023, Strategic Defense Intelligence, 2019.
- (2) United Kingdoms, IHS Markit, 2019.
- (3)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Action Plan, 2019–2022, United Kingdoms Ministry of Defence, 2019
- (4) Doing Business with Defence – Opportunities and Innovation in the Defence Supply Chain, United Kingdoms Ministry of Defence, 2019
- (5) Commision Recommendation (EU) 2018/624, European Commission, 2018.
- (6) Selling to government – A guid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United Kingdoms Crown Commercial Service, 2017
- (7) Industry for Defence and a Prosperous Britain: Refreshing Defence Industrial Policy, United Kingdoms Ministry of Defence, 2019
- (8) A Defence Industrial Strategy for the UK, John. Louth and Trevor, Taylor,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e for Defence and Security Studies, 2018
- (9) Topic Guide: Foreign Direct Investment, Trevor Killen and June Ghimire, Nathan Associates London Ltd, 2016
- (10) Brexit, All you need to know about the UK leaving the EU, BBC News, 2019
- (11) 2017 Annual Budget Cycle Directive, United Kingdoms Ministry of Defence, 2016
- (12) TenCate Strengthens Position in the UK Armour Market, NetComposites Website, 2010
- (13) Jane's Sentinel Security Assessment, IHS Markit, 2019.

국내문헌

- (14)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진입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김주권, 한국경제포럼, 제9권 제4호, 67-95pg, 2017
- (15) 2020년 세계 주요지역별 시장진출전략(2020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KOTRA, 2019
- (16)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 한-영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채택,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2019
- (17)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과제. 이준호, 김종일, 중소기업연구원, 2007

영국 방산시장 동향 보고서

A Study on the Defense Industry Market for United Kingdoms

작성			
성명	분야	전화번호	E-mail
최준화	해외시장 조사·분석	055-751-5786	jchoi@dtaq.re.kr
참여전문가		방산수출지원센터	
검토 및 자문		방산수출지원센터	
확인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수출지원센터장 책임연구원 한승재 수출지원2팀장 선임연구원 정유진		